

AUTUMN 2010
CONTENTS

대한비뇨기과개원의협의회 진길남 회장 MESSAGE 02

아프리카의 추억 PHOTO ESSAY 04

PSA screening이 전립선암의 사망률에 미치는 영향 STUDY ① 08

정관수술과 전립선암과의 관련성 논란 STUDY ② 14

Steep Drop Seen in Circumcisions in U.S. STUDY ③ 16

Review : Scholarship Lecture STUDY ④ 18

권순생 원장의 Art Gallery, 당신은 언제 가장 아름답나요? GALLERY 20

풍성한 가을 문화의 향기 CULTURE 22

마라토너 활력인생을 달리다, 김남국 피부비뇨기과 원장 HOBBY ① 24

이 시대의 진정한 음악애호가, 서석주비뇨기과 원장 HOBBY ② 28

진리가 담긴 책 그리고 가을 낭만을 더해줄 음반 BOOK&MUSIC 31

사랑과 우정을 나눈 우루무치, 고구려 의료대장정 TRAVEL 32

가을 낭만 캠핑의 모든 것, Best Camping Spot WEEKEND 36

판례로 살펴본 의료분쟁의 예방, 수술동의서와 의료분쟁 LAW 40

효율적인 직원관리, 채용에서 퇴직까지 병·의원 노무관리 MANAGEMENT ① 44

효율적인 병원홍보, 진화하는 매체환경 따라잡기 MANAGEMENT ② 45

소통으로 살맛나는 비뇨기과 수원모임 COMMUNICATION 46

2010 대한비뇨기과개원의협의회 추계학술대회 안내 INFO 47

독자이벤트 / 편집후기 EVENT/LETTER 48

COVER STORY

좁은 진료실에서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에서 벗어나서, 아프리카의 대초원과 높은
하늘을 보니 답답한 가슴이 뻥 뚫리는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그곳에도
초식 동물들과 맹수들의 생존을 건 약육강식의 게임이 매일 벌어지고 있었다.

표지사진 신명식(명비뇨기과 원장)



■ 존경하는 비뇨기과개원의 회원 여러분!



유난히 무덥고 잦은 비로 우리를 힘들게 했던 여름이 한 순간에 쌀쌀한 날씨로 마음까지
춥게 느껴지는 가을입니다.

날씨마저 변덕을 부려 우리의 밥상까지 부담을 줄 정도로 연일 채소 값이 폭등하고 있습
니다. 현재 개원가는 장기적인 경제 불황이 해소 되지는 않고 점점 가중되는 것 같아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지난 여름호에 이어 <유로진> 가을호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호에는 개원가에서 알아두어야 할 학술 정보
와 법률 정보, 또 우리 회원들이 직접 들려주는 풍성한 이야기들로 지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제8대 집행부는 회원 여러분들과 더욱 다양한 정보를 나누고 지속적으로 소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
니다. <유로진>을 비롯해 올해 두 번째로 준비한 학술대회에서도 실질적으로 회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
는 강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관심과 격려는 늘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더 많이 소통하고 화합하는 것이 의료
발전의 동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집행부는 회원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며 행복을 나눌 수 있도
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어느새 다사다난(多事多難)했던 2010년의 끝자락입니다. 항상 성원을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회원 여러분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제8대 대한비뇨기과개원의협의회
회장 진길남



2010 대한비뇨기과개원의협의회 추 계 학 술 대 회

대한비뇨기과개원의협의회는 오는 11월 28일(일요일) 2010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추계학술대회에는 보다 실질적이고 회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풍성하게 준비했습니다. 음경확대술을 비롯한 개원가의 최신 지견을 소개하는 특강을 준비하였으며 특히 회원 여러분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시골의사 박경철 선생님의 “경제 이야기”와 강은하 강사(새봄커뮤니케이션 대표, SBS 성우)의 “진료의 효율성을 높이는 의료커뮤니케이션”의 주제로 강의를 준비하였습니다.

한국의료의 방향을 읽고, 학술적인 배움과 함께 병원 경영의 효율적인 최신정보를 나눌 2010 대한비뇨기과개원의협의회 추계학술대회에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일 시 : 2010년 11월 28일(일) 09:00~17:40
- 장 소 : JW메리어트 호텔 5층 그랜드볼룸
- 평 점 : 6점

*보다 자세한 내용은 47p에 있습니다.



대한비뇨기과개원의협의회

아프리카의 추억

어릴적부터 TV에서 보아오던 아프리카 사바나 초원의 야생 세계는 나이 오십줄에 들어섰어도 항상 동경의 세상이었다. 지난 초여름, 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후배에게 대진을 부탁하고, 카메라와 렌즈를 챙겨 아프리카 케냐행 비행기에 홀로 몸을 실었다. 아랍에미리트항공을 이용하여 두바이에서 비행기를 갈아타고 꼬박 하루 가까이 걸려 케냐의 나이로비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글, 사진 신명식(명비뇨기과 원장)





끝없는 대초원에서 인간과 동물을 배경으로 애뜻한 사랑을 그린 영화 <아웃 오브 아프리카> OST를 MP3에 다운받아 비행기에서 들으면서, 나를 기다리고 있을 사바나 초원의 맹수들과 초식 동물들을 떠올렸다.

망원렌즈가 광각렌즈처럼 보이는 끝이 없는 저 아프리카 초원은 450만년전 인류의 조상이 태어났고, 어린왕자의 첫 지구별 여행지가 된 곳이다. 이곳을 7일동안 아침부터 저녁 무렵까지 온종일 맹수들을 찾아다녔다.



아프리카 초원에서 사자, 표범, 코끼리, 코뿔소, 버팔로를 Big Five라고 부른다. 원래는 원주민들이 땅 위에서 사냥하기 위험한 5대 동물을 그렇게 불렀는데, 요즘은 차량을 이용한 사파리에서

꼭 보아야 할 중요한 다섯가지 동물들을 의미한다.

사자는 3일에 한번 정도 사냥을 하고, 낮에는 대부분의 시간을 그늘에서 반둥거리며 지낸다. 사자는 가족단위의 생활을 하는데, 대개 숫사자 2~3마리, 암사자 8~10마리, 새끼 10마리 정도가 한 무리를 이룬다. 암사자는 죽을 때까지 평생을 무리 속에서 살아가지만 숫사자는 1년 정도 자라면 그 무리를 떠나야 한다. 무리를 떠난 젊은 숫사자는 떠돌이가 되거나, 다른 무리의 늙은 숫사자와 싸워 쫓아내고 그 무리의 새로운 지배자가 되어야 한다.

표범은 경계심이 많아 초원에서 가장 보기 힘든 맹수의 하나다. 항상 단독으로 생활하며 사냥하는 시간 외에는 나무 위에서 주로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보기가 어렵다. 명품 모피같은 멋진 표범의 피부는 보는 이로 하여금 감탄을 자아내게 한다.

지구상에서 가장 무거운 동물인 **코끼리**는 그 힘이 대단하여 발에 밟히면 사자의 뼈도 으스러진다고 한다. 그렇게 힘센 코끼리도 연애를 좋아하여 항상 다산하고 새끼를 잘 돌보기로 유명하다. 코끼리 무리에는 항상 어린 코끼리가 섞여 있는걸 볼 수 있다.

버팔로는 소의 한 종류쯤으로 생각하여 순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아프리카 버팔로는 초원에서 가장 위험한 동물이다. 사자와 같은 맹수들도 버팔로에 의해 부상을 많이 당한다고 한다. 코뿔소는 개체 수가 해마다 줄어 이제 아프리카에서 보기 드문 동물이 되고 있다. 초원에서 새끼와 함께 풀을 뜯는 장면이 보기에 정겹다.

수줍음 많은 **얼룩말**은 멋진 줄무늬를 가지고 태어난다. 그 줄무늬는 마치 인간의 지문과 같아 모두 독특한 모양을 가지고 있어 무리 속에서도 새끼 얼룩말은 어미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얼룩말은 오동통 살찐 엉덩이와 화려한 줄무늬로 영양없는 미시아줌마 같다.

누(Wildebeest)는 늘 수백만 마리가 함께 몰려다닌다. 영화 <라이온킹>에서 심바의 아버지를 뺀아 죽인 동물이 바로 이들이다. 누는 초원의 동물 중에 가장 못생긴 걸로 알려져 있는데, 말의 얼굴에 염소의 수염, 소의 몸과 뿔 등이 부조화의 극치다. 매년 수백만 마리의 누떼가 물과 새 풀을 따라 탄자니아의 세렝게티 초원에서 케냐 쪽 마사이마라 초원 쪽으로 목숨을 건 대이동을 되풀이 하는데, 이 장면은 정말 경이로운 장관이라고 한다.



맹수들의 먹이가 되는 초식동물들은 언제나 불안하다. 하지만 멋진 초원을 배경으로 서있는 **톱슨가젤**은 청순가련형의 아가씨처럼 멋진 모습이다.

좁은 진료실에서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에서 벗어나서, 아프리카의 대초원과 높은 하늘을 보니 답답한 가슴이 뻥 뚫리는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그곳에서 초식 동물들과 맹수들의 생존을 건 약육강식의 게임이 매일같이 벌어지는 것도 함께 보고 돌아왔다.



PSA screening이 전립선암의 사망률에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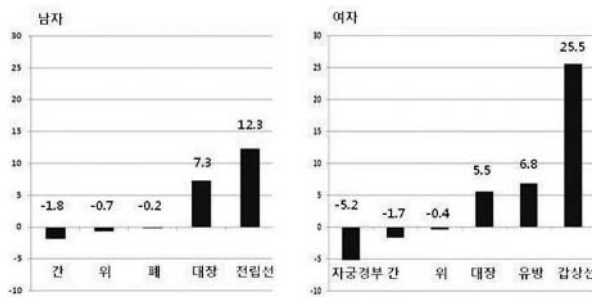
글 한준현(한일병원 비뇨기과)



1. 전립선암의 역할

전립선암은 미국과 서구 유럽에서 남성암 발생률 1위이며, 암으로 인한 사망 원인은 미국이 폐암에 이어 2위를, 서구 유럽 여러 나라 중 스웨덴과 스위스에서는 가장 흔한 암 사망 원인이며, 서구 유럽 전체로는 폐암, 대장암, 위암에 이어 4위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전립선암이 차지하는 비율은 1989년 1.2%에 불과했으나 2001년에는 2.8%, 2005년에는 4.5%로 가파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고, 주요 암종의 연령 표준화 발생비의 변동이 1999년에서 2005년까지 12.3%로 전립선암의 증가율이 가장 높다(Figure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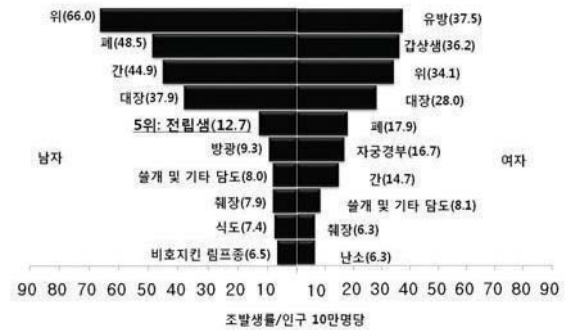
Figure 1. 남녀 호발암 발생률 증가비(1999-2005)



〈출처: 2003-2005년 암발생률 및 1993-2005년 발생자의 암생존율 통계공표, 2008〉

1996년 이후 전립선암은 남성 10대 암에 들었고, 2003-2005년 자료에서는 남성 5대 암에 진입하였다(Figure 2). 또한 전립선암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특히 50대 이후부터 급격히 증가하여 60대에서 80대까지 발생률이 꾸준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남성 암 사망률에서도 전립선암이 차지하는 비율은 1990년 0.5%에서 2008년 2.4%로 남성암 7위의 사망률을 보이며,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전립선암의 환자 수가 자궁경부암의 환자 수를 2003년 이후부터 추월했음을 보고하고, 최근 Blue Ribbon Campaign에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55세 이상의 남성, 10,363명에 대한 인구비 보정 추정 전립선암발견율(Age-Adjusted Detection Rate)은 3.4%로 주변의 일본(Natori:2.3%)이나 중국(Changchun:1.3%)보다 높다.

Figure 2. 주요암의 남녀 발생률(2003-2005)



〈출처: 2003-2005년 암발생률 및 1993-2005년 발생자의 암생존율 통계공표, 2008〉

2. PSA screening test가 전립선암 사망률에 미치는 영향

전립선암의 대표적인 조기 검진 방법인 혈청 전립선특이항원(Prostate Specific Antigen:PSA) 검사는 저렴한 비용에 간단한 혈액 채취만으로 전립선암의 1차적 위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유용한 인체 종양 표지자 검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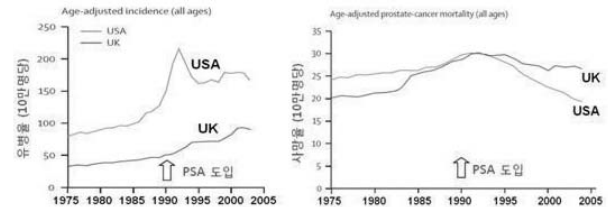
최근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에 발표된 PSA 조기 검진에 대한 유럽의 대규모 임상시험인 ERSPC(European Randomized Study of Screening for Prostate Cancer)의 중간 결과 보고에서 PSA 검진이 전립선암 사망률을 20%감소시키는 효과가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과잉 진단과 과잉 치료의 위험이 존재한다고 하였다. 또한, 초기 검진 시행군(Screening Arm)에 누락된 경우와 대조군의 오염(Contamination)을 보정한 최근 연구에서는 PSA 조기 검진은 실제로 PSA 조기검진을 시행한 사람의 31%까지 전립선암 사망률을 감소시킨다고 하였다. 현재 EU(European Union)의 몇몇 나라에서 유방암, 자궁경부암, 대장암에 대하여 국가 암 검진이 시행 중이며, 이러한 결과에 따른 EU 회원국의 전립선암 국가 암 검진 추가 움직임에 대하여 EAU(European Association of Urology)는 EU 회원국의 보건 기관에서 국가 전립선암 조기 검진을 고려하기 전에 조기 검진으로 얻는 이득과 과잉 진단과 치료, 삶의 질, 비용 대비 효과 측면을 함께 고려하기를 권유하였다.

같은 시기에 발표된 미국의 대규모 임상시험인 PLCO(Prostate, Lung, Colorectal, and Ovarian Cancer Screening Trial)의 결과는 사망률을 감소시키지 못했다고 보고하였으나, 검진 시행군과 대조군의 무작위 분배 이전에 이미 양군에서 약 45% 가량 PSA 검사를 시행한 PSA 오염(Contamination)이 보고 되었고, 이로 인한 임상시험 디자인의 오류로 그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 2003년도 JAMA(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의 보고에 의하면 2001 BRFSS(Behavioral Risk Factor Surveillance System)를 이용한 자료분석에서 50세 이상 미국 남성의 75%가 최소 1회 이상의 PSA 검사를 받았고, 57%는 주기적으로 PSA 검사를 시행 받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PLCO의 전립선암에 대한 임상시험 디자인에 오류가 발생하였으나, 이러한 PLCO의 결정적 오류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U.S. Preventive Services Task Force는 75세 이하에서 전립선암 검진의 이익과 위해 사이의 균형을 평가하기 위한 근거가 현재로는 불충분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 이유를 추론해보면, 2003년에 JAMA에 보고된 바와 같이 이미 전립선암에 대해 국가 암 검진을 시행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대중화 되어 버린 높은 PSA 수검률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미국은 현재 국가적으로 CDC(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를 통하여 대장암과 유방암, 자궁경부암에 대해서 국가 암 검진을 시행하고 있으나 전립선암에 대하여는 국가 암 검진을 시행하고 있지 않으나, 미국 정부에서 시행하는 보험제도인 Medicare를 통하여 무증상 남성을 대상으로 매년 PSA 검사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에 발표된 미국과 영국의 전립선암 유병률과 사망률에 대한 생태학적인 연구에서 PSA 검사 도입 이후에 PSA 검사 시행 빈도가 높은 미국이 PSA 검사시행 빈도가 낮은 영국에 비해 현저하게 전립선암 사망률이 감소하였 (Figure 3). 미국의 전립선암 사망률은 1990년도에 비해 2004년도에 34%나 감소하였는데, 영국은 1999년에서 2002년 사이의 45세에서 84세 사이의 남성에서 24%만이 PSA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이러한 PSA 검진율의 차이는

전립선암 사망률의 차이로 이어지고 있다.

Figure 3. 미국과 영국의 전립선암 유병률과 사망률의 변화(1975-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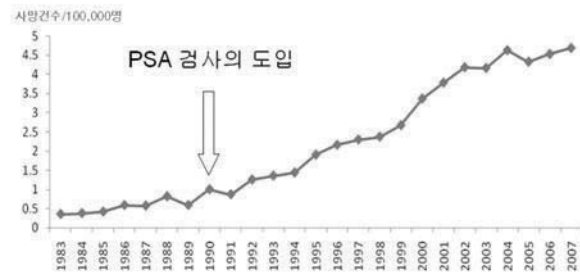
〈출처: The lancet oncology. 2008;9:445-52〉

일본의 경우도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전립선암 사망률이 PSA 검사 도입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주요한 원인을 낮은 PSA 수검률에 두고 있다. 전립선암에 대한 다양한 남성 호르몬 차단요법은 전립선암 사망률을 낮추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일본은 JUA(Japanese Urological Association)에 등록된 전립선암 환자의 약 57%가 다양한 남성 호르몬 차단요법을 받고 있으나 전립선암 사망률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태다. 현재 일본은 PSA 검진을 국가암검진으로 채택하고 있지는 않으나, JPSPC(Japanese Prospective Cohort Study of Screening for Prostate Cancer)의 일환으로 2002년부터 홋카이도, 군마, 히로시마 그리고 나가사키현에서 50세에서 79세 사이의 10만 명을 검진 대상으로 하고, 같은 현에서 동일 규모의 인구를 대조군으로 한 대규모의 PSA 조기 검진에 관한 임상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2012년경에 1차 분석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PSA 검진은 고병기(High Stage) 전립선암 유병률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이미 잘 증명이 되어있다. PSA 검진율이 높은 미국은 고위험군 전립선암이 점진적인 감소추세에 있고, EU에서도 전립선암 발생률이 가장 높은 ERSFC의 스웨덴 지역에서는 검진 시행군에서 대조군에 비해 10년 추적관찰 기간 동안 전이 전립선암의 비율이 49% 감소하였고, 스위스의 Tyrol 지방에서는 2005년도에 PSA 검진 수검률이 86.6%였는데, 전이 전립선암은 70%가

감소하였다. 한국인의 전립선암은 외국의 보고에 비하여 임상적으로 진행된 병기의 환자 비율이 높다고 하였고, 2004년 대한비뇨기과학회의 조사에 따르면 50세 이상 남성의 PSA 수검률은 15%다. 이처럼 낮은 PSA 수검률로 인하여 우리나라는 아직도 고위험군의 전립선암 비율이 높고, PSA 검사 도입 이후 약 20년이 지났지만 전립선암 사망률은 계속적 증가추세에 있다(Figure 4).

Figure 4. 국내 전립선암 연도별 사망률



〈출처: 2008년 사망원인 통계결과, 2009〉

3. 전립선암 국가 암 검진 도입의 배경과 타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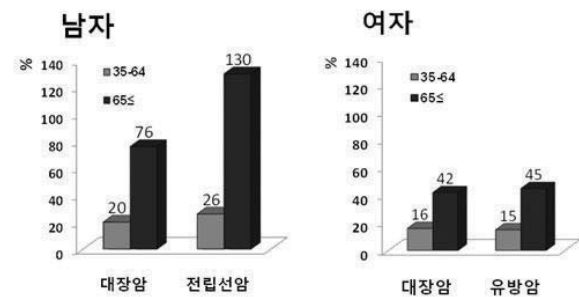
암으로 인해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에 약 69,000여명(인구 100,000명당 조사사망률 139.5명)이 사망해, 1988년 이래 암은 우리나라 사람에서 사망원인 1위를 기록하고 있다. 국가 암 발생통계가 공식적으로 집계된 1999년 이래 연령 표준화 암 발생률은 연간 2.5%의 꾸준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함으로써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고 나아가 국민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의료의 접근도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무료로 암 검진을 해주는 국가 암 조기 검진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국가 암 조기 검진사업을 통하여 정부는 1999년부터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을 무료로 검진해 주고 있다. 2002년에는 검진대상자를 의료급여 수급자에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가운데 보험료 부과기준 하위 20%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으로 확대하였고, 2003년도에 간암을, 2004년에는 대장암을 추가함으로써 5대암(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에 대한 국가적인 검

진체계를 구축하였으며, 매년 꾸준히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2009년도에는 지역가입자는 7만2천원 이하, 직장가입자는 6만원 이하인 자로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우리나라 호발 5대암은 남자는 위, 폐, 간, 대장, 전립선암 순이고 여자는 유방, 갑상선, 위, 대장 그리고 폐암 순이다(Figure 2). 이들 호발암의 1999년에서 2005년까지 연령 표준화 발생률의 변동을 보면, 남자의 경우 위암(-0.7%), 폐암(-0.2%), 간암(-1.8%)의 발생은 감소하는 반면, 대장암(7.3%)과 전립선암(12.3%)의 발생은 증가하고 있고, 여자는 위암(-0.4%), 자궁경부암(-5.2%) 그리고 간암(-1.7%)의 발생은 감소하는 반면, 갑상선암(+25.5%), 유방암(+6.8%) 그리고 대장암(+5.5%)의 발생은 증가하고 있다(Figure 1). 이와 같이 위암, 간암, 자궁경부암과 같이 발암과정에서 감염균이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진 감염성암(Cancer of Infectious Origin)은 발생 또는 사망수준이 감소하는 반면 대장암, 유방암, 전립선암과 같은 서구형 암(Westernized Cancer)으로 인한 발생 및 사망수준은 증가하고 있다. 이는 우리 사회의 식이 및 생활습관이 지난 20여 년 동안 급속히 서구화되면서 서구의 암 발병양상을 따라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서구형 암의 증가는 젊은 연령 보다 고령 인구에서 사망률의 급격한 증가를 가져왔다(Figure 5).

Figure 5. 연령군별 서구형 암 사망률 증가비 (1995-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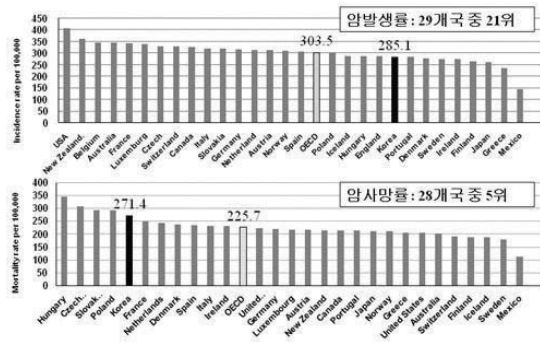


〈출처: 2008년 사망원인 통계결과, 2009〉

OECD 국가 간암 발생 현황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2002년 연령표준화(세계표준인구) 전체 암 발생률이 전체 29개국에서 남자는 21위, 여자는 27위로 이들 나라와 비교해서 암 발생수준 자체가 높지는 않으나, OECD 국가 간암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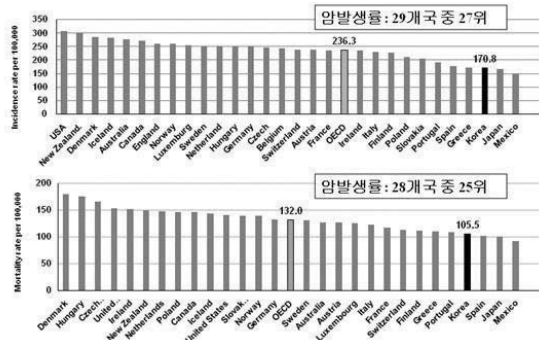
망률 자료에 따르면 여자의 경우, 2002년 연령 표준화 사망률이 자료가 집계된 28개국 중 21위를 위치하고 있고, 남자는 28개국 중에서 상위 5위에 위치하고 있다(Figure 6, 7).

Figure 6. OECD 국가의 전체암발생률과 사망률 (남자, 2002)



〈출처: OECD health data 2009〉

Figure 7. OECD 국가의 전체 암 발생률과 사망률 (여자, 2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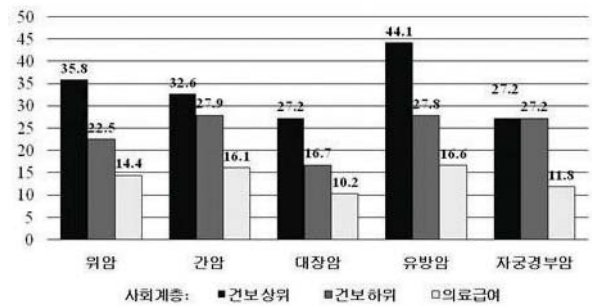


〈출처: OECD health data 2009〉

현재 우리나라는 남자에서 암 발생 수준에 비해 암 사망률이 높고, 여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암 관리가 소홀히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현재 국가 암 조기 검진사업에서 여자는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의 5개 암에 대해서 시행되고 있는 반면, 남자는 위암, 간암, 대장암의 3개 암에만 적용이 되어, 여성 수명이 남성보다 긴 현재 상황에서 건강에 관한 성 평등권 위배라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또한 현재의 사회 계층별 국가 암 검진 참여율을 보면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모든 국가 암 검진 항목에 대하여 사회 계층이 낮을수록 국가 암 검진 참여가 저조한 것을 알 수 있다(Figure 8). 따라서 국가 암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OECD 국가간에 우리나라의 남성암 사망률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국가 암 검진에 전립선암 검진이 포함됨은 물론, 낮은 사회 계층에 대한 전략적인 국가 암 검진 참여 홍보가 필요하다.

Figure 8. 사회계층별 국가암검진 참여율, 2008



〈출처: 국가암관리사업의자원 및 평가 2008〉

또한 2008년도 중앙 암 등록본부에서 발표한 주요 암의 5년 생존율의 국제 비교 자료를 보면 국가 암 검진 대상항목인 위암, 대장암, 간암, 자궁경부암의 5년 생존율은 미국보다 좋고, 유방암은 미국과 유사하나, 유독 전립선암의 5년 생존율은 미국의 98.9% 보다 22% 낮은 76.9%를 보여 평균치를 미국보다 13.1% 낮추는 원인이 되고 있다. 그리고 전립선암의 5년 생존율을 일본이나 EU와 비교하였을 때, 서로 비슷한 수준으로 보이나 같은 연도로 따져보면, 우리나라의 5년 생존율이 일본과 EU에 비해 상당 부분 뒤쳐져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Figure 9).

Figure 9. 주요암의 5년 생존율 국제비교

암종	단위: %			
	한국 ^a '01-'05	미국 ^b '96-'04	일본 ^c '97-'99	Eurocare ^d '95-'99
위암	56.4	24.7	62.1	24.1
폐암	15.5	15.2	25.6	12.6
대장암	64.8	64.4	65.2	53.5
간암	18.9	11.7	23.1	8.6
갑상샘암	98.1	96.9	92.4	86.5
유방암	87.3	88.7	85.5	81.1
자궁경부암	81.1	71.2	71.5	66.5
전립선암	76.9	98.9	75.5	77.0
모든 암	52.2	65.3	54.3	51.9

〈출처: Ries LAG, et al (eds). SEER Cancer Statistics Review, 1975-2005. National Cancer Institute, 2008. National Cancer Center in Japan. Cancer Statistics in Japan, 2008〉

이러한 각 나라의 의료 수준을 대표하는 암 관련 지표를 끌어 올리고, 국가 브랜드 가치를 올리며, 우리나라가 아시아 의료의 허브가 되기 위해서는 전립선암의 국가 암 검진 도입이 절실히 필요하다.

4. 결론

우리나라 전립선암의 발병률과 사망률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전립선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낮추고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기검진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만큼 저렴한 비용의 간편한 혈액 검사인 PSA 검진을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에 도입하여 정기적인 검진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국가 암지표의 호전으로 이어지고, 의료부분에 대한 대한민국 국가브랜드의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다.

출처 MDfaculty(www.MDfaculty.com)

참고문헌

1. Jemal A, Siegel R, Ward E, Hao Y, Xu J, Thun MJ. Cancer statistics, 2009. CA: a cancer journal for clinicians 2009;59:225-49
2. Responding to the challenge of cancer in Europe. In: Coleman MP, Alexe DM, Albrecht T, McKee M, eds.: Institute of Public Health of the Republic of Slovenia: 2008.
3. 중앙암등록본부 2003-2005 년 암발생률 및 1993-2005 년 발생자의 암생존율 통계공표 2008.
4. 통계청. 2008년 사망원인통계결과. 2009; .
5.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장성 강화 전후 암환자 약제비의 변화 (2003년~2007년). 2008.
6. 대한비뇨기과학회. Blue ribbon campaign 2009.
7. Kuwahara M, Tochigi T, Kawamura S, et al. Mass screening for prostate cancer: a comparative study in Natori, Japan and Changchun, China. Urology 2003;61:137-41.
8. Schroder FH, Hugosson J, Roobol MJ, et al. Screening and prostate-cancer mortality in a randomized European study. N Engl J Med 2009;360:1320-8.
9. Roobol MJ, Kerkhof M, Schroder FH, et al. Prostate Cancer Mortality Reduction by Prostate-Specific Antigen-Based Screening Adjusted for Nonattendance and Contamination in the European Randomised Study of Screening for Prostate Cancer (ERSPC). European urology 2009.
10. Abrahamsson PA, Artibani W, Chapple CR, Wirth M. European Association of Urology position statement on screening for prostate cancer. European urology 2009;56:270-1
11. Andriole GL, Crawford ED, Grubb RL, 3rd, et al. Mortality results from a randomized prostate-cancer screening trial. N Engl J Med 2009;360:1310-9.
12. <http://www.ahrq.gov/clinic/uspst08/prostate/prostaters.htm>.
13. <http://www.cd.c.gov/cancer/dcpc/prevention/screening.htm>.
14. <http://www.medicare.gov/health/prostate.asp>.

15. Cdlin SM, Martin RM, Metcalfe C, et al. Prostate-cancer mortality in the USA and UK in 1975-2004: an ecological study. The lancet oncology 2008;9:445-52.
16. Mdia J, Moss S, Johns L. Rates of prostate-specific antigen testing in general practice in England and Wales in asymptomatic and symptomatic patients: a cross-sectional study. BJU international 2004;94:51-6.
17. Ito K. Prostate-specific antigen-based screening for prostate cancer: evidence, controversies and future perspectives. Int J Urol 2009;16:458-64.
18. Siddiqui SA, Boorjian SA, Inman B, Bagliewski S, Bergstralh EJ, Blute ML. Timing of androgen deprivation therapy and its impact on survival after radical prostatectomy: a matched cohort study. The Journal of urology 2008;179:1830-7; discussion 7.
19. Messing EM, Manola J, Yao J, et al. Immediate versus deferred androgen deprivation treatment in patients with node-positive prostate cancer after radical prostatectomy and pelvic lymphadenectomy. The lancet oncology 2006;7:472-9.
20. Immediate versus deferred treatment for advanced prostatic cancer: initial results of the Medical Research Council Trial. The Medical Research Council Prostate Cancer Working Party Investigators Group. British journal of urology 1997;79:235-46.
21. Clinicopathological statistics on registered prostate cancer patients in Japan: 2000 report from the Japanese Urological Association. Int J Urol 2005;12:46-61.
22. Ito K, Kakehi Y, Naito S, Okuyama A. Japanese Urological Association guidelines on prostate-specific antigen-based screening for prostate cancer and the ongoing cluster cohort study in Japan. Int J Urol 2008;15:763-8.
23. Aus G, Bergdahl S, Lodding P, Lilja H, Hugosson J. Prostate cancer screening decreases the absolute risk of being diagnosed with advanced prostate cancer—results from a prospective, population-based randomized controlled trial. European urology 2007;51:659-64.
24. Okihara K, Kitamura K, Okada K, Mikami K, Ukimura O, Miki T. Ten year trend in prostate cancer screening with high prostate-specific antigen exposure rate in Japan. Int J Urol 2008;15:156-60; discussion 61.
25. Cooperberg MR, Lubeck DP, Mehta SS, Carroll PR. Time trends in clinical risks stratification for prostate cancer: implications for outcomes (data from CaPSURE). The Journal of urology 2003;170:S21-5; discussion S6-7.
26. Bartsch G, Horninger W, Klocker H, et al. Tyrol Prostate Cancer Demonstration Project: early detection, treatment, outcome, incidence and mortality. BJU international 2008;101:809-16.
27. Song C, Kang T J, Lee M S, et al. Clinicopathological Characteristics of Prostate Cancer in Korean Men and Nomograms for the Prediction of the Pathological Stage of the Clinically Localized Prostate Cancer: A Multi-institutional Update. The Korean Journal of Urology 2007;48:125-30.
28. Park SK, Sakoda LC, Kang D, et al. Rising prostate cancer rates in South Korea. Prostate 2006;66:1285-91.
29. Choi KS, Park EC, Shin HR, Kim CM, KOD. National Cancer Screening Program in Korea.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Cancer Prevention 2004;9:116-22.
30. OECD health data 2009
<http://www.ecosante.org/index2.php?base=OCDE&lang=ENG&largh=ENG>.
31. 국립암센터. 국가 암관리사업의 지원 및 평가. 2008.

정관수술과 전립선암과의 관련성 논란



글 두진경(대한비뇨기과개원의협의회 무임소 이사, 어비뇨기과 원장)



정관수술은 현재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남성피임의 방법이다. 1992년도에 미국 존스홉킨스병원의 발표에 의하면 전세계 중에서도 선진국에서는 미국,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영국, 캐나다, 네덜란드 등 총 6개국과 개발도상국에서는 중국, 한국, 인도 등 3개국에서 가장 많이 시행되고 있으며, 특히 뉴질랜드에서는 전체 성인남성의 절반이상이 정관수술을 받고 있다.

1990년도 최초로 환자대조군 연구를 통한 2개의 역학조사에서 정관수술을 시행한 환자들의 전립선암 상대위험도가 약 5.3과 2.2로 발표되면서 '정관수술 시행여부가 전립선암의 발생인자 중의 하나일 수도 있다'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사실 전립선암의 발생 기전과 정관수술과의 연관성은 생물학적으로나 의학적으로 생각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연구결과에서도 정관수술을 시행한 환자들이 20년 이후의 전립선암 상대위험도가 높다고 발표되면서 논란이 더 가중되었다.

그러나 위의 연구들이 방법론적인 문제점이 있으며, 환자선택과 잘못된 분류로 인한 땀뿔림(Bias)이 있다라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최근 미국의 캘리포니아 및 워싱턴, 유럽의 덴마크 및 영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에서 가장 정관수술을 많이 하는 뉴질랜드 등의 선진국에서 시행된 대규모의 코호트 연구들에서 '정관수술 시행여부가 전립선암과 상관이 없다'라는 일련의 발표결과가 있었다. 이런 연구결과들로 선진국에서 가장 많은 남성임인 전립선암과 정관수술과의 시행여부와는 상관이 없다라는 견해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선진국의 연구결과들과는 달리,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전립선암 유병률을 가지고 있으면서 정관수술이 많이 시행되고 있는 개발도상국인 중국과 인도에서 정관수술의 시행여부가 전립선암의 발생에 대해 일부 연관성이 있는 보고들이 있었다. 이런 문제점으로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World Health Organization/World Bank Special Programme of Research, Development and Research Training in Human Reproduction and Family Health International'의 공동보조를 통해 상대적으로 적은 전립선암 유병률을 가진 개발도상국인 인도와 네팔 및 대한민국에서 시행된 최근결과에서는 정관수술의 시행여부가 전립선암의 발생과 상관이 없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그러므로 각 나라의 전립선암 유병률에 상관없이, 정관수술의 시행여부가 전립선암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출처 MDfaculty(www.MDfaculty.com)

참고문헌

1. Sneyd MJ, Cox B, Paul C, Skegg DC. High prevalence of vasectomy in New Zealand. *Contraception* 2001;64:155-9
2. Rosenberg L, Palmer JR, Zaubler AG, Warshauer ME, Stolley PD, Shapiro S. Vasectomy and the risk of prostate cancer. *Am J Epidemiol* 1990;132:1051-5
3. Mettlin C, Natarajan N, Huben R. Vasectomy and prostate cancer risk. *Am J Epidemiol* 1990;132:1056-61
4. Giovannucci E, Ascherio A, Rimm EB, et al. A prospective cohort study of vasectomy and prostate cancer in US men. *JAMA* 1998;269:873-7
5. Giovannucci E, Tosteson TD, Speizer FE, et al. A retrospective cohort study of vasectomy and prostate cancer in US men. *JAMA* 1993;269:878-82
6. Hiatt RA, Armstrong MA, Klatsky AL, Sidney S. Alcohol consumption, smoking and other risk factors and prostate cancer in a large health plan cohort in California. *Cancer Causes Contrd* 1994;5:66-72
7. Lynge E. Prostate cancer is not increased in men with vasectomy in Denmark. *J Urol* 2002;168:488-90
8. Goldacre MJ, Wotton CJ, Seagroatt V, Yeates D. Cancer and cardiovascular disease after vasectomy: an epidemiological database study. *Fertil Steril* 2005;84:1438-43
9. Holt SK, Salinas CA, Stanford JL. Vasectomy and the risk of prostate cancer. *J Urol* 2008;180:2565-7
10. Cox B, Sneyd MJ, Paul C, Delahunt B, Skegg DC. Vasectomy and risk of prostate cancer. *JAMA* 2002;287:3110-5
11. Hsing AW, Wang RT, Gu FL, et al. Vasectomy and prostate cancer risk in China. *Cancer Epidemiol Biomarkers Prev* 1994;3:285-8
12. Platz EA, Yeole BB, Cho E, Jussawalla DJ, Giovannucci E, Ascherio A. Vasectomy and prostate cancer: a case-control study in India. *Int J Epidemiol* 1997;26:933-8
13. Schwingl PJ, Meirik O, Kapp N, Farley TM. HRP Multicenter Study of Prostate Cancer and Vasectomy. Prostate cancer and vasectomy: a hospital-based case-control study in China, Nepal and the Republic of Korea. *Contraception* 2009;79:363-8

Steep Drop Seen in Circumcisions in U.S.

번역 두진 경(대한비뇨기과개원의협의회 무임소 이사, 어비뇨기과 원장)



다음 내용은 2010년 8월 16일자 NY Times에서 '미국의 포경수술의 급격한 감소(Steep drop seen in circumcisions in U.S.)' 라는 제목의 기사를 대한비뇨기과개원의협의회 회원들과 공유하고 싶어 해석한 내용이다.

에이즈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전세계적으로 포경수술을 권장함에도 불구하고 미국 Baby의 포경수술 비율은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비엔나에서 열린 International AIDS Conference에서 Federal-health Researcher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의 병원에서 태어난 남아들 중 절반 이하, 즉 1980~1990년대의 2/3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발표하였다.

지난주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관계자는 이 발표수치에 대해서 정확하지 않다고 경고했지만, 인터넷에선 벌써 격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수치는 C.D.C. 연구자인 Charbel E. El Bcheraoui가 AIDS Conference에 보고하였는데 메인 언론에서는 보도하지 않았다. 그러나 Elsevier Global Medical News라는 신생언론에서 발표슬라이드 사진과 함께 보도하였고 블로그로 빨리 퍼져나갔다.

이 발표슬라이드는 2006년에 56%에서 2009년에 32.5%로 포경수술비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수

치는 SDI헬스회사에서 계산되었는데, 병원 밖에서 시행하는 것(대부분 유대인의 할례)과 보험에서 보상되는 수술은 포함하지 않았다.

SDI 헬스회사의 Andrew Kress 수석연구원은 이 데이터가 아직 발표되지 않은 것이고 여전히 분석되고 있다고 경고하였지만 해마다 포경수술이 감소하는 경향은 인정하였으며, 포경수술비율을 연구하는 것이 연구목적이 아니라 원래 연구목적은 포경수술의 합병증 비율에 대한 연구라고 덧붙였다.

포경수술반대론자들은 문화적으로 인정되는 성적학대라고 부르는 것 이상으로 상식의 승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에이즈확산방지를 위해 포경수술을 권유할지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Federal Health 공무원들에게는 이 뉴스로 인해 자기들이 생각한 것보다 더 어려운 싸움이 될 것 같다.

지난주 C.D.C. 공무원은 이 연구에 대해 인터뷰 요청을 거부하였으나 C.D.C. 대변인인 Elizabeth-Ann Chandler는

E-mail로 답변하였는데, 이 수치는 포경수술비용 목적이 아니라 합병증빈도를 계산하기 위한 수치라고 강조하였다. “C.D.C.는 이 데이터 수집에도 관련없을 뿐만 아니라 포경수술비용을 검토할 책임도 없다. 따라서 Infant Male의 포경수술비용이 정확한지에 대한 언급을 할 수가 없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그러나 그녀는 포경수술이 감소되는 경향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았다.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최근 10년간 유아의 포경수술비용이 어느 정도 감소한다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신생아 포경수술은 합병증이 매우 적었으며, 대부분은 경미하였고 죽은 아기도 없다고 확인되었다.

포경수술을 반대하는 기관들은 그들이 웹사이트 혹은 출산교육자들에게 배포되는 비디오를 통해서 퍼지는 메시지에 “부모들이 반응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포경수술은 필요 없고, 해로우며, 통증도 있다라는 것이 점점 퍼지고 있다”라고 N.Y. Tarrytown에 본부를 두고 있는 비영리기관인 Intact America의 수장 Georganne Chapin이 말했다.

여성포경수술에 대한 인식도 부모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녀는 “당신이 작은 여아의 수술은 무서워하면서 작은 남아를 수술하는 것에 어떻게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죠?”라고 반문한다.

미국질병관리본부와 미국 소아과학회에서는 새로운 Policy Recommendations를 발표할 목적으로 포경수술에 대한 과학적인 증거를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Federal Agency는 작년 말에 새로운 Recommendations를 발표한 것이 외에 아직까지 어떤 단체도 이에 대해 언급하지 못했다.

미국 소아과학회 관계자는 2011년 초반에 새로운 인이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주제를 연구하는 Task Force가 지난주에 리포트를 완성했으며, 다른 몇몇 위원회에서 검토 중이라고 Task Force에 속한 컬럼버스의 Nationwide

Children's Hospital의 소아과장인 Dr. Michael Brady의사가 언급하였다. 또한 그는 소아과학회가 현재의 중립적인 안보다 더 고무적인 입장을 채택할 것이고, 포경수술이 에이즈 예방뿐만 아니라 건강상 이득이 있음을 발표할 것이라고 하였다.

WHO에서는 2007년도에 포경수술을 이성간의 에이즈확산을 줄여주는 중요한 예방법이라고 추천하였다.

“어떤 사람도 부모에게 당신 아이에게 포경수술을 해야 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것은 바보 같은 것이다. 의사가 해야 하는 중요한 점은 포경수술에 대한 이득과 위험에 대해 정보를 제공해서 부모가 최선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고 Dr. Brady 의사는 말했다.

1999년도에 미국소아과학회에서 발표한 현재의 정책(1999년도에 미국 소아과학회에서는 신생아 포경수술에 대해서 의학적인 이득이 있더라도 반드시 해야 하는 수술은 아니며, 부모는 이득과 위험에 대해서 잘 설명 듣고 선택해야 한다는 권고문을 발표함) 이후에 몇몇 State의 Medicaid Program은 포경수술에 대한 보장을 중단하였다. Dr. Brady는 이러한 State의 보장 중단이 포경수술을 찬성하는 부모들이 적어지는 이유가 될 수 있으며 다른 이유로는 포경수술 반대운동과 더불어 백신과 같은 의학적인 처치를 일축하는 부모들의 증가뿐만 아니라, 포경수술에 대해 거부하는 Hispanic 인구가 늘어나서 그럴 수도 있다라고 언급하였다.

약 80%의 미국인은 포경수술을 받았으며 이것은 선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이다. 그러나 포경수술 찬성론자들도 포경수술이 호모들의 에이즈 위험을 감소시키지 않기 때문에 포경수술운동을 강하게 전개하더라도 에이즈 확산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다고 인정하고 있다.

또한 아프리카 연구가 포경수술이 여성에서 남성으로 에이즈 전염을 막는다고 하더라도 포경수술을 한 남성이 여성으로 에이즈 전염을 감소시킬지는 분명하지 않다.

출처 NY TIMES(www.nytimes.com)

Review : Scholarship Lecture



글 이정 래(대한비뇨기과개원의협의회 무임소 이사, 타워비뇨기과 원장)

Ultrasound Estimated Bladder Weight and Measurement of Bladder Wall Thickness— Useful Noninvasive Methods for Assessing the Lower Urinary Tract 〈J Urol. 2010 Sep 15〉

지난 수십 년간 배뇨근 비후를 검사하기 위한 진단법으로 초음파를 이용한 방광벽 두께, 배뇨근 두께, 방광무게 등이 임상적인 관심을 받아왔다. 본 논문은 임상영역에서 사용되어진 위의 방법들을 채택하여 기존의 논문들을 비교분석해 보았다.

MEDLINE Serch를 통해서 방광벽 두께(Bladder Wall Thickness), 배뇨근 두께(Detrusor Wall Thickness), 초음파로 측정된 방광무게(Ultrasound Estimated Bladder Weight)에 대해 2009년 6월까지 간행된 논문을 분석하였다.

남성, 여성, 소아에서 초음파를 이용한 방광벽 두께, 배뇨근 두께, 방광무게를 측정하였다. 연구 데이터는 남성에서 방광출구폐색이 없는 군과 방광출구폐색이 있는 군에서는 의미 있는 차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방광벽 두께는 배뇨근 과활동성(Detrusor Overactivity)과 요역동학적 긴장성요실금(Stress Incontinence)사이에서 의미 있는 연구결과를 보였다. 하지만 아직까지 몇 가지 변수와 측정의 표준화가 부족하여 이러한 수치들의 진단적 의미와 Cutoff Value를 정하기에는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초음파를 이용한 방광벽 두께, 배뇨근 두께, 방광무게는 하부요로계를 평가하는 의미 있는 임상적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ffectiveness of Dried Cranberries(Vaccinium Macrocarpon) in Men with Lower Urinary Tract Symptoms
 〈Br J Nutr. 2010 Aug 31:1-9〉

하부요로증상은 노년기의 남성에서 대단히 흔한 증상이다. 본 연구는 하부요로증상이 있거나 PSA 수치가 올라간 경우, 임상적으로 진단된 만성 비세균성 전립선염을 가지고 있는 남성에서 크렌베리(Vaccinium Macrocarpon) Powder가 어떤 효과가 있는지 확인해보았다.

42명의 남성중에서 하루에 1,500mg의 크렌베리 건조분말을 먹은 군(21명)과 크렌베리를 먹지 않은 군(21명)으로 나누었다. 연구시작시점과 3개월과 6개월에 신체검사, IPSS, QoL, IIEF-5, 생화학 혈액검사, 남성호르몬, PSA(Free and Total), CRP, 항산화상태, 경직장 전립선 초음파, 요류검사, 초음파 잔뇨검사를 시행하였으며, 모든 개체에서 소변으로 Ex Vivo Anti-adherence Activity를 측정하였다. 대조군에 비해서 크렌베리 분말을 먹은 군에서 연구 180일 시점에서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는 IPSS, QoL, 배뇨 수치들(최고 요속, 평균 요속, 배뇨량, 잔뇨량), PSA 수치감소를 보였다. 혈청 남성호르몬과 CRP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전립선상태나 CRP수치와 상관없이 하부요로증상이 있는 남성에서 크렌베리가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호전을 보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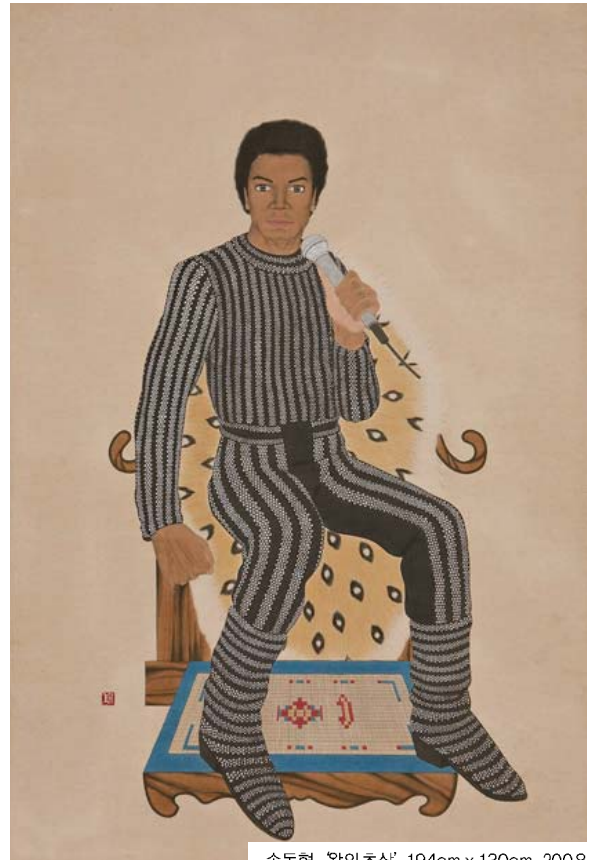
Words of Wisdom, Re : Effect of Dutasteride on the Risk of Prostate Cancer. Andriole GL, Bostwick DG, Brawley OW, et al. REDUCE Study Group. N Engl J Med 2010/362:1192-202
 〈Eur Urol. 2010 Aug 58(2):312〉

4년간의 다기관, Randomized, Double-blind, Placebo-controlled 연구에서 Dutasteride 0.5mg 복용이 조직학적으로 증명된 전립선암의 위험성을 감소시키는지 비교 분석해보았다.

50~75세의 남성, PSA 수치가 2.5-10ng/ml, 6개월 내에 전립선조직검사(6~12 Cores)에서 음성으로 확인된 남성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2년과 4년 뒤에 10 Core 경직장 전립선초음파 조직검사를 시행하였다. Dutasteride 복용군에서는 전립선암에 대한 절대적인 위험도 5.1% 감소, 상대적인 위험도 23% 감소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Dutasteride 복용군에서 급성요폐 77% 감소, 전립선비대증 관련 수술 73% 감소를 보였으나, 반면 발기부전 위험도 3.3% 증가, 성욕 감소(1.7%), 성욕 소실(0.6%)을 보였다.

권순생 원장의 Art Gallery

당신은
언제 가장
아름답나요?



손동현 '왕의 초상', 194cm x 130cm, 2008

그림은 쉽게 접할 수 없는 일상 이외의 것을 보고 느끼게 해줌으로써 정신을 풍요롭게 한다. 마이클잭슨의 영화 <This is It> 재미있게 보고 나서 손동현 작가의 작품이 떠올랐다고 말하는 권순생 원장. 동양화를 전공한 손동현은 젊은 작가임에도 불구하고 현대물을 동양화에 접목시켜 한국 미술사에 한 획을 그은 인물이다. 권순생 원장이 손동현 작가의 작품 중 백미로 꼽히는 '왕의 초상'을 회원들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 꺼내 놓았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짙은 문화의 향기를 공유하는 이 공간에서만큼은 눈이 즐겁고 마음까지 편안하길 바란다.

글, 미술컬렉터 권순생(펜파 워비노기과 원장) | 그림 손동현

마이클 잭슨의 사망으로 2009년 7월부터 시작될 마이클의 마지막 50일간의 대공연이 취소 되었다. 이 공연의 6월 LA 스테이플스에서 진행된 리허설을 편집한 영화가 마이클 잭슨의 〈디스 이즈 잇〉이다.

최고의 음악성을 보여주는 모습들, 좋은 공연을 만들기 위하여 한 장면 장면 꼼꼼히 점검하는 모습들, 공연 내내 스텝 한명 한명을 배려하는 모습 속에서 음악의 천재이지만 그 바탕에 타인에 대한 배려와 인간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가진 인간임을 느낄 수 있었다. 마이클이 죽지 않았다면 아마도 가장 위대한 공연이 되었을 것이다.

50년간 팝의 황제로 군림한 그의 공연 영화를 보면서 손동현 작가의 2008년 전시 〈왕의 초상〉 전시가 떠올랐다.

작가 손동현은 우리 전통의 한국화와 미국 대중문화에 익숙한 우리 현실을 결합시킨 초기 작품 〈배투만선생상〉〈수파만선생상〉〈문자초상〉 등으로 유명하다. 마이클 잭슨을 어릴 적부터 좋아했던 작가는 마이클 잭슨의 시기별 앨범을 중심으로 24명의 황제의 초상을 완성했다. 그의 작품은 동양화 기법으로 가장 서구적인 팝의 황제 초상을 어릴 적 데뷔시절부터 성형과 나이, 시대의 영향으로 점점 변화해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 작품은 마이클의 인생 중 가장 힘이 넘치고 활기찬 시절로 보인다. 오른 주먹을 불끈 쥐고 있고 두 눈은 부릅뜨고 허리를 고추 세우고 정면을 응시하면서 땀의 황제는 나다' 라고 외친다. 인생의 가장 자신감 있는 시절은 사자의 포효를 보는 느낌이다. 후반에 지나치게 하얗게 변한 피부, 여성처럼 변한 얼굴과 가늘어진 몸이 아닌 왕의 모습, 혈색 좋은 붉은 입술과 짙 벌린 굵은 다리는 강한 남성을 느끼게 해주는 작품으로 24명의 초상 중 가장 전성기의 마이클 잭슨을 보는 듯해서 기분이 좋아지는 작품이다.

아무리 음악의 신이라 하지만 남성인 마이클은 가장 남성미가 물씬 풍길 때 더 아름다워 보인다. 당신은 아름답나요?

풍성한 가을 문화의 향기

연말이 가까워지면서 공연계는 알찬 무대를 속속 내놓고 있다. 바쁜 일상으로 문화생활에 잠시 소홀했음지모를 회원들을 위해 몇 편의 추천 공연 일정을 소개한다.

글 안송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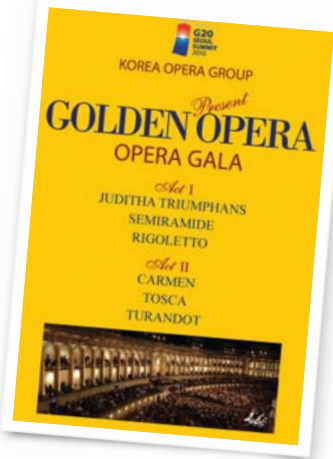


엄인호, 최이철, 주찬권 - 슈퍼세션 콘서트

신촌블루스의 엄인호, 사랑과 평화의 최이철, 들국화의 주찬권이 새로운 밴드 '슈퍼세션'을 만들었다. 새 앨범의 쇼케이스 현장에 서 만난 그들은 여유가 넘쳤다. 셋이 뭉친 이유가 시대의 음악을 뒤바꿔 놓겠다는 거창한 사명감은 아닌 것 같았다. 한국 록의 전설, '위대한 거장' 등 세상이 붙인 수식어도 부담스러워 하는 그들은 그저 깨끗이, 고집스럽게 그들만의 음악을 하고 있었다. 후크송 내지는 기계음악이라 불리며 희화화된 현재의 대중음악에 대한 거부감이 그들에게는 오래도록 가치를 높이며 소비되는 '진짜음악'을 계속해서 생산하게 하는 원천이었다. 길게 늘어뜨린 희끗한 머리카락이 그들도 흐르는 세월을 피할 수는 없었음을 말해주지만 누군가 말하지 않았던가. '노병은 죽지 않는다'고.

다음 달 있을 라이브 콘서트에서는 새 앨범 수록곡을 중심으로 한 슈퍼세션의 연주와 노래를 들을 수 있으며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하는 무대도 마련된다. '한동안 뜸했었지', '골목길', '행진' 등 왕년의 히트곡까지 들을 수 있다. 이번 콘서트에서 그들의 녹슬지 않은 실력, 끊임없이 타오르는 열정, 진화하는 음악을 하고픈 욕심을 양껏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

장소 연세대학교 대강당 일시 12월 10~11일 오후 7시 문의 9M(02-3461-0976)



GOLDEN OPER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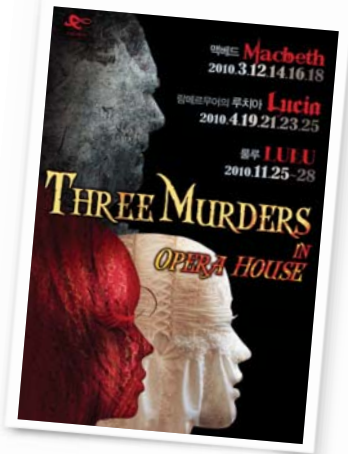
G20 서울 정상회의 기간 동안 한국오페라단이 G20 서울 정상회의를 축하하고 성공을 기원하는 의미의 공연을 연다. 세종문화회관에서 <라 트라비아타> <아이다> <투란도트>를 지휘한 바 있는 이탈리아 지휘자 마르코 잠벨리가 선봉에 서고 국내외 최정상급 성악가들과 성인, 어린이 합창단 등 250여명의 출연진들이 주옥같은 오페라 토스카, 세미라미데, 투란도트, 리골레토, 까르멘 등으로 무대를 꾸민다.

장소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일시 11월 11~12일 오후 7시 30분 문의 한국오페라단(02-587-1950~2)

관능의 오페라 - 룰루

1937년 초연된 알반 베르크의 마지막 오페라 룰루가 드디어 2010년 11월 처음 국내 팬들 앞에 선다. 프랑크 베데킨트의 희곡 <대지의 정령>(1895), <판도라의 상자>(1904)를 원작으로 한 룰루는 베르크의 마지막 작품이자 미완의 작품이다. 난해한 소재와 음악은 20세기 가장 혁신적이고 진보적인 오페라에 등극하게 만들었다. 국내에서는 간헐적으로 활동했던 소프라노 박은주의 국내 오페라 정식 데뷔 무대라 더욱 기대된다. 그녀의 목소리로 꾸미는 21세기의 새로운 룰루는 또 다른 화제를 몰고 올 것이다.

장소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일시 11월 25~28일 오후 8시 문의 국립오페라단(02-586-5282)



클리블랜드 오케스트라 내한 공연

미국 클리블랜드 오케스트라는 1918년 창단 이래 최고의 기량을 쌓아 자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최정상급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번 내한 공연에서는 프란츠 빌저 피스트가 지휘를 맡고 드뷔시, 모차르트, 베토벤 등 다양한 분위기의 정통 레퍼토리를 협연 없이 모두 오케스트라 작품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프란츠 빌저 피스트는 오스트리아인 출신으로는 카라얀 이후 36년 만에 처음으로 취리히 오페라의 음악감독을 맡아 화제가 됐다. 국내에서는 1995년 런던 팔하모닉 내한 공연 때 조수미와의 협연으로 첫 인사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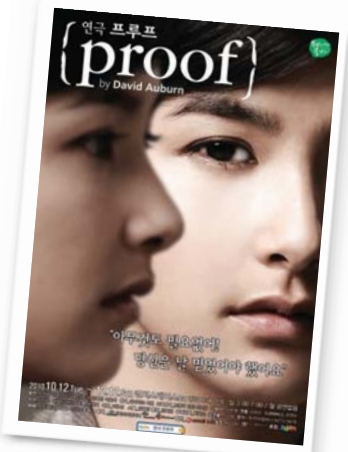
장소 고양아람누리 아람음악당/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일시 11월 20일 오후 7시/ 21일 오후 8시 문의 고양문화재단 (1577-7766)/ 빈체로국립오페라단(02-599-5743)



아름다운 사랑의 증명 - 프루프(Proof)

2010 무대가 좋다'의 세번째 무대 프루프는 배우 강혜정과 이윤지의 첫 연극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다. 프루프는 2000년 뉴욕 맨하튼 극장에서 초연된 후 브로드웨이 최장기 공연 연극의 기록을 가지고 있으며 풀리처상, 토니상 등 권위 있는 8개의 시상식에서 최우수 작품상을 연이어 수상하기도 했다. 아버지의 과학적 재능을 물려받아 이지적이고 분석적이지만 동시에 나약하고 불안정한 여주인공 캐서린의 사랑을 지성과 감성의 부드러운 조화로 보여준다.

장소 대학로 예술마당 3관 일시 ~12월 12일 평일 8시/ 토,일요일 3시,7시 월 공연없음 문의 악어컴퍼니(02-6273-5678)







김남국 피부비뇨기과 원장

마라토너, 활력인생을 달리다

모든 아마추어 마라톤 동호인들에게는 소망과 꿈이 있다. 마라톤 풀코스 42.195km를 완주하는 것이 소망이고 'sub-3 달성' 즉 풀코스를 3시간 내에 돌파하는 것이 꿈이다. 17번의 마라톤 풀코스 완주는 물론 11년째 마라톤 마니아로 '활력 인생'을 달리고 있는 비뇨기과 전문의가 있다.

글 이동림 | 사진 이주혁

화창한 가을 오후, 김남국 원장을 만나러가기 위해 서울-안산 간 고속도로에 몸을 실었다.

1시간 30분여를 달렸을 즈음 안산시 고잔동에 위치한 김남국 피부비뇨기과에 도착했다. “어서들 와요. 부족한 저를 인터뷰 하려고 먼 길까지 오다니 쑥스럽구먼. 허허~”

교통 체증 때문에 쌓인 피로도 잠시 이웃집 아저씨 같은 푸근한 외모와 소탈한 말투의 김남국 원장이 따뜻하게 맞아준다. 김남국 피부비뇨기과에서 24년째 진료를 보고 있는 그는 평소 환자를 돌보는 친절함에서 주말이면 달리기에도 폭 빠져 사는 마라톤 마니아로 유명하다.

정적인 인생길에 탈출구는 있다

현재 국내에는 수많은 마라톤 동호인들은 있지만 'sub-3'을 이룬 마라토너들은 3,000명 수준이다. 평소 그의 마라톤 기록은 4시간 중반이지만 마라톤을 사랑하는 아마추어 동호인들에게 기록은 중요하지 않다. 마라톤은 선망의 대상이자 끝없는 도전이기 때문이다.

“지난 87년 이곳에 개원한 후 병원생활의 권태기와 나태함이 찾아왔습니다. 몸이 무거우니 진료 후에도 너무 힘들더군요. 그러다보니 활력을 잃고 정적으로 치닫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됐죠.” 무기력해 지쳤을 때 즈음 그는 주특기인 달리기를 시작해 99년도 동아일보 21.0975km 하프마라톤대회에 참가해 사실상 처음 마라톤에 입문하게 된다. 그때를 생각해보면 골인 지점을 남겨두고 페이스 조절을 못해 사투를 벌였던 기억이 새롭다. 퇴근 후 매일 밤 인근 거리와 운동장을 불문하고 1시간 30분씩 뛰었다. 조금씩 몸이 좋아지고 달릴 수 있는 거리가 늘어나기 시작해 마라톤 사랑에 더욱 빠져들게 됐고 2003년 중앙일보 마라톤대회에서 4시간 16분대 기록으로 처음 풀코스를 완주했다. 이후 그는 17번의 마라톤 풀코스 도전에 성공했다. 전문 마라토너가 아닌 일반인으로서의 ‘와 대단하다’는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기록이라는 것이 동호인들의 평가다. 그는 올해 2월에 참가한 동경마라톤대회를 잊을 수가 없다. 매년 35,000여명이 참가하는 일본 최대의 풀 마라톤에 출전해도 도쿄의 메인 거리를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완주했기 때문이다.



“이국땅에 가서 도쿄의 명소를 뛰는 것도 흥분되었지만 수많은 동경시민의 열렬한 환호와 응원을 잊지 못합니다. 그 기분은 평상시 느낄 수 없는 희열감이라고 해야 할까요.”

건강은 생활의 활력소

모든 마라토너들의 꿈은 sub-3을 달성하는 것. 100m를 평균 23~24초 속도로 3시간여를 달려야 하는 것으로 각고의 노력과 전문적인 트레이닝 없이는 불가능한 기록이다.

하지만 그의 소박한 꿈은 체력이 주어지는 한 꾸준히 즐거운 마음으로 마라톤을 오래도록 하는 것이다. 내친 김에 뉴욕, 런던, 보스턴 마라톤대회와 같은 메이저대회에 출전하고 싶은 소망도 있다. “마라톤을 하면 무엇이 좋을까요? 일단 건강해 진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강한남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생활에 자신감이 넘치는 것은 물론이고 나이에 비해 젊어 보인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어요.”

그는 인생을 살다보면 결단을 내리고 도전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그때마다 “마라톤 풀코스를 달성한 내가 못 할 것이 뭐냐”는 강한 오기와 자신감이 생긴다고 했다.

“젓바퀴 도는 듯한 정막한 삶에 활력을 넣어주는 것이 마라톤이었습니다. 달리는 인생의 전환점이 됐습니다. 마라톤 이후 병원경영도 잘되고 있고요. 저와 함께 ‘활력인생’의 오르막을 오를 선후배님들 없으신가요?”

마라톤의 성취감은 누구도 대신 선물해 줄 수 없는 것이기에 소중하다. 그는 마라톤을 통해 ‘이제 마지막이다’라고 느끼는 절망의 순간에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끈기와 인내심을 배웠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은 바로 그 순간이 우리가 넘어야 할 고비가 되고, 그 고비를 넘으면 훨씬 더 먼 길을 아름답게 달릴 수 있다는 교훈을 얻었다. 백 마디 말보다 몸으로 체험했던 값진 경험은 살아가는 내내 김남국 원장을 ‘활력인생’을 사는 마라토너로 이끌어 줄 것이다.

김남국 원장의 종횡무진 활약상 예술창작발전소 비움(Bieum)

김남국 원장은 마라톤 활동 외에 문화예술 활동에도 또 다른 활약을 펼치고 있다. 그가 운영위원장으로 있는 문화 공간 '비움'은 안산시 상록구 동막골에 위치해 아름다운 숲과 저수지로 이루어져 장관을 이룬다. 이곳에서 그는 경기문화재단과 함께 프로그램 운영과 관리를 하며, 각종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통해 예술가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비움(Bieum)'은 이름 그대로 '비운다'는 뜻. 자신이 가진 것을 비워내고, 복잡한 마음을 비울 수 있는 그 곳, 하지만 한번 다녀오면 또 다른 무엇으로 그득 채워져서 돌아오게 되는 곳이 바로 문화 공간 '비움'이다.

비움은 수리산 자락의 멋진 자연을 배경으로 도심에서 불과 5분 거리인 데도 풍요로운 주변 환경에 둘러싸여 있어 문화예술 창작인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공간이다. 이곳은 다목적 홀과 숙소, 야외 무대와 공간, 비닐하우스 연습실, 주방 및 조리시설이 다 갖춰져 있어 전시 공연 외에 문화·예술 창작인들의 워크숍과, 거주하면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장단기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2008년 6월부터 매달 열리고 있는 정기음악회는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소통의 장을 만들고 있다. 10월 열린 정기음악회는 문화의 달을 맞아 '오페라 갈라' 음악회를 개최했다. 각계각층 예술인이 참석한 이번 음악회에서는 카르테 오페라 앙상블을 초청하여 오페라 아리아와 귀에 익은 성악, 가요 등을 희유화 해석해 유쾌한 포복절도 음악회를 연출 한바 있다. 문화 공간 '비움'은 2008년 4월 문을 열어 지금까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몇 사람이 지역문화예술의 활성화를 위한 시설로 자리 매김 했다. 풀뿌리 문화예술 창작인들이 창작이나 공연·전시 장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문의 비움(031-403-9003)/경기문화재단(031-231-7234)







서석주 비노기와 원장

이 시대의 진정한 음악애호가

음악은 일상에서 굉장히 친숙한 존재다. TV나 라디오를 켜면 자연스럽게 음악이 흘러나오고, 카페에서 차를 마시거나 쇼핑을 하 기 위해 들른 거리의 숍에도 늘 음악이 흐른다. 굳이 찾아들으려고 하지 않아도 항상 주변에서 접하게 되는 것이 음악이다. 장르를 막론하고 듣기 좋은 음악은 현대의 좋은 치유약이라고 말하는 서석주 비노기와 원장. 이 시대의 진정한 음악애호가로 통하는 그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글 방은주 | 사진 이주혁

서석주 원장은 벌써 40여 년째 음악과 사랑에 빠져있는 소문난 음악애호가다. 대구에서 비노기과의 원을 운영하고 있는 그를 찾았을 때 소문이 틀림없음을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다. 진로실 뒤편으로 빼곡하게 채워져 있는 음반과 오디오의 모습이 꽤 인상적이었다. 테이블 모서리에는 깨알같은 글씨로 음악 목록을 써놓은 메모가 가득했다.

음악으로 시작된 제2의 인생

“음악은 예술적인 아름다움의 본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연스럽게 라디오 음악을 듣다보니까 좋아하게 되었고, 더 많은 음악을 접하고 싶어졌죠. 아마도 아주 어린시절부터 좋아했던 것 같아요.” 서석주 원장은 의대에 진학해서도 음악에 대해 더 많은 것이 알고 싶어졌고, 그 사랑이 더욱 깊어졌다. 4,200장의 클래식 LP와 CD를 모으면서 의향회, 향음회, 행음회, 대구 악우회 등 고전 음악 감상 모임을 만들어 여럿이 함께 감동을 나누기도 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KBS-FM 음악해설가, 영남일보 음악 담당 객원기자라는 프로필이 생기게 되었고 지속적으로 일간지와 음악잡지 칼럼을 기고하고 있다.

음악은 열정의 샘

중세음악부터 현대음악까지 방대한 양의 음반을 수집한 서석주 원장은 1995년부터 5년여를 매일 밤 9시부터 1시까지 음악을 감상하고 연주의 특징과 장단점을 파악하는 작업에 매진했다. 그리고 2000년에 클래식 안내서인 <20세기를 빛낸 연구자> 발행, 다시 7년 후에 <20세기 명연주가 명곡·명반 1213>으로 두 권으로 구성된 개정판을 선보였다.

“클래식 음반을 소개한 책은 많지만 외국 저자의 번역서나 여기에 기초한 편집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좀 더 객관적이고 우리에게 맞는 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연주 내용은 기존의 글이나 문헌의 참고 없이 객관적 기준으로 비교하고 감상해서 만들었죠.”

하루 종일 진료를 하면서 음악을 듣고, 느끼고, 글로 완성하는 것까지 모두 해내기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하지만 서석주 원장은 진료를 마치면 어김없이 명연주로 평가된 음반들을 들어보고 그 감상을 메모하기 시작했다. 당시에는 매일 하루에 두 곡 정도, 오페라의 경우엔 이틀에 한 곡 정도를 감상하고 비교해보았다고 했다. 음악관련 서적은 독학으로 마스터했다. 웬만한 애정과 열정 없이는 불가능했던 일이다.

음악은 함께 나누고 싶은 감동

서석주 원장이 1995년부터 지금까지 기고한 음악 칼럼만 해도 160여 편 가량 된다. 더 많은 이들과 아름다운 음악의 세계를 공유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시작한 것이지만 더 값진 생명력을 지니게 된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내년에는 음악과 연주에 관한 글을 모아 음악 산문집을 발간할 계획이 있다. 책에는 아마도 그가 수십 년 동안 노력해온 인생이 담기게 될 것이다.

“음악은 전문적인 재능이나 소질 없이도 감성만으로 즐길 수 있는 문화입니다.” 그는 음악의 매력을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나누길 바란다. “하루종일 좁은 공간에서 진료하는 의사에게 음악은 편안한 예술적 향기를 전해주는 좋은 치료약입니다.”

그리고 이 가을에 회원들과 함께 듣고 싶은 치료약으로 브람스의 <교향곡 제4번>을 추천했다. “브람스는 폭넓은 선율을 들려주는 음악가입니다. 그가 만약 현재 살아있다면 인간적으로도 친해질 수 있는 친구가 되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서석주 원장은 브람스의 이름답고 서정적인 감성을 좋아한다고 했다. 하지만 음악은 절대로 편애하면 안 된다는 당부도 잊지 않는다.

“좋은 음악을 선곡하기 위한 규칙은 없습니다. 누구나 그때그때 감정에 충실하고 편안하게 즐기면 되는 것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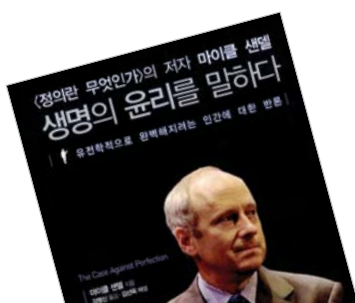
서석주 원장이 추천하는 가을 감동의 선율

브람스 <교향곡 제4번>

서석주 원장이 추천하는 가을에 듣기 좋은 음악은 브람스의 교향곡 제4번이다. 첫 번째 교향곡을 완성하기까지 무려 20여 년의 세월을 투자했다고 알려진 브람스, 특히 그의 교향곡 제4번은 다른 3곡에 비해 서사적이고 아련함이 묻어나는 명작이다. 이 곡은 제1악장 시작부분에 바이올린이 연주하는 제주제에 의해 애절한 마음이 고조되며, 제2악장에는 교회 선율이 사용되었고, 끝악장은 파사칼리아 형식으로 바흐의 <칸타타 150번> 중 마지막 합창부분을 변형하여 사용했다. 브람스의 선율은 깊어가는 가을 스산한 마음을 사로잡으며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라고 이야기한다.

진리가 담긴 책 그리고 가을 낭만을 더 해 줄 음 반

모든 것이 스마트해지다보니 이제 키보드만 두드리면 다양한 정보를 검색할 수 있고 MP3로 어디에서나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세상이 되었다. 하지만 누군가는 말한다. 세상의 진리는 여전히 책 속에 있으며, 누군가의 앨범을 소장하는 것이 꽤 가치 있는 것이라고 이 가을에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진로실에서 혹은 무료한 자투리 시간에 함께하면 좋을 책과 음반을 소개한다.



〈생명의 윤리를 말하다〉_마이클 샌델 저, 강명신 역, 동녘

재능으로 좋은 성적을 내는 운동선수와 근육강화제의 도움을 받는 선수 사이에는 어떤 윤리적인 문제가 있을까?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사회적 정의와 관련한 다양한 논리를 넘나들며 수많은 독자를 매료시킨 샌델이 이번에는 윤리적 딜레마에 관한 문제들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낸다. 인간 복제 등 유전공학 시대에 우리에게 닥쳐올 문제들까지 다뤘다는 점에서 '다음 세대를 위한 윤리학'이라고 할 만한 책이다.



〈위대한, 그러나 위험한 진단〉_리사 샌더스 저, 장성준 역, 랜덤하우스

몸이 좋지 않아 병원에 가야 할 것 같다. 혹시 큰 병인가 걱정스럽더니, 갑자기 '과연 의사가 내 병을 제대로 알 수 있을까' 의문이 생긴다. 〈뉴욕타임즈〉에 '진단'을 연재하는 리사 샌더스 박사가 해답에 접근할 길을 뚫었다. 진단 오류가 어디서 시작되고 위대한 진단은 어떻게 탄생하는지 친절하게 풀어냈다. 환자에게 병력을 듣고 실마리를 찾는 게 70~80% 영향력의 진단 도구라는 게 이채롭다. 환자와 제대로 소통하는 게 진단의 관건이라고 정리했다.



존 레논 〈Power To The People : The Hits [2010 New Best Album]〉, EM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영향력 있는 음악가 존 레논의 탄생 70주년 타계 30주년을 기념해 그가 남긴 8장의 앨범과 2종의 박스세트, 새로운 베스트 앨범이 2가지 버전으로 디지털 리마스터 됐다. 정규 앨범 수록곡과 미 수록곡들이 11장의 CD에 담긴 스페셜 세트는 존 레논의 아트 프린트와 65페이지의 초호화 소책자를 포함하여 한정판으로 선보인다. 세대를 초월한 음악 영웅 존 레논을 그리워하는 팬들에게 귀한 선물이 될 것이다.



이사오 사사키 〈10th Anniversary Best Collection〉, STOMP MUSIC

한국의 문화를 좋아한다는 뉴에이지 음악의 가장 이사오 사사키의 내한 10주년 기념 앨범이 발매되었다. 1999년 발매된 〈Missing You〉부터 2009년 발표한 〈The Way We Were〉까지 그의 지난 10년을 되돌아보고 대표곡을 엄선했다. 국내에서는 발표되지 않았던 'Soar Into The Sky'를 최초로 들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그의 선율로 듣는 영화 〈엽기적인 그녀〉의 O.S.T 'I believe'가 무척 친숙하다.

사랑과 우정을 나눈 우루무치

고구려 의료대장정

매일 다람쥐 쳇바퀴 도는 듯한 일상생활, 특히 출근 후 몇 십 미터 사무실 반경 속에서 지루한 시간을 보내다 보면 따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때 문득 덕수궁 박물관의 청자연적의 미묘한 것이 생각났다. 똑같이 생긴 연꽃들이 정연히 달려 있는 가운데 유독 꽃 잎 하나만 옆으로 약간 구부러져 나와 있다. 하지만 이것은 균형을 깨는 듯 조화를 이루면서 눈에 가슬리지 않는 파격 같아 보인다. 이게 바로 마음의 여유인 것이다. 그래서 난 결심했다. '그래! 무조건 떠나고 보자.' 그리하여 골치 아픈 일들을 뒤로 하고 몇 해 전 여름이 다가올 무렵 우루무치로 향했다.

글 우중철(대한비뇨기과개원의협의회 부회장, 우비뇨기과 원장)



Day 1 드디어 우루무치 도착

김해공항에서 오후 1시 비행기를 타고 북경으로 향했다. 항공 스케줄상 어쩔 수 없이 북경공항에서 6시간가량 대기 후 오후 8시가 되어서야 우루무치 행 비행기에 올랐다. 중국 서쪽 끝에 위치하는 우루무치(위그루어로 '아름다운 목장'이라는 뜻)는 현재 신장자치구의 구도(區都)이지만 세계에서 바다와 가장 먼 도시로 알려져 있다. 20세기 중국이 이 지역을 지배하기 전에는 한가로운 초원지역이었다고 하지만 중국이 신장성을 차지해 경제개발을 하고 서부 대개발 사업에 매진하는 동안 이곳은 새로운 도시로 탄생하였다. 중국 국토의 약 6분의 1을 차지하며 그 성의 면적은 한반도의 몇 배는 될 정도로 넓다. 상당 부분은 사막(타클라마칸)이고 험난한 산지와 고원 지역도 존재한다. 오래전부터 이곳은 실크로드(비단길)의 중요한 한 부분으로 중앙아시아의 영역이었다. 이곳에는 서로 다른 민족들이 살고 있는데 그 대부분은 위구르족이고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이나 키리크스탄 사람들도 일부 살고 있다. 대부분의 종교는 이슬람이다. 남자들은 머리에 모자를 쓰고 여자는 히잡(머리 스카프)을 쓴다. 비행기에서 내려 숙소로 돌아온 시간은 새벽 1시가 훨씬 넘는 한밤 중이었다. 다음날 아침 일찍부터 시작할 진료를 위해 서둘러 잠을 청했지만 왠지 마음이 설레서인지 잠이 오지 않았다.

Day 2 사랑과 우정을 나누는 진료현장

아미아 인과병원에는 많은 환자들이 대기하고 있었다. 빠른 시간 내에 안과, 내과,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피부비뇨기과, 가정의학과, 중의학과 접수 및 약국을 설치했다. 그리고 불리는 환자들을 진료하기 시작했다. 현지 교민과 한국어과 학생들의 도움으로 의사소통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 의료진들은 우정의 가교를 다지는데 한 몫 한다는 일념으로 생명존중을 사랑으로 키워가듯 모두가 진솔한 인간애를 바탕으로 인술을 신었다. 인과병원이었기 때문에 인과원자들이 주종을 이루었고, 그 외 고온건조한 환경에서 오는 피부질환이나 관절염 환자들이 많았다.

이른새 약 400여명의 환자를 진료했다. 그 곳 주민은 우랄 알타이인 후손으로 피부체형이나 생활습관이 우리와 비슷해서 쉽고 친근감 있게 진료할 수 있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특수진환에 대한 준비나 수술 장비 등의 부족으로 더 많은 환자를 돌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래도 병인의 진단과 치료에 대한 충분한 설명으로 호응을 얻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현지 사정에 대한 각 과별 충분한 연구로 더욱 폭 넓게 진료활동을 넓혀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병원 바로 옆에 위치한 식당에서 양고기를 곁들인 현지식으로 전식을 먹고 또다시 몰려드는 환자들을 진료하는데 이에 애어컨 가동이 안 되는 곳이었어서 무척 더웠다. 그리고 저녁에는 무용을 곁들인 병원장 초청 만찬이 있었는데 친친히 다양한 메뉴와 풍부한 음식(양고기 등)이 제공되었다. 무대에서는 유흥을 돋우는 흥겨운 음악과 위구르족, 파미르족, 카자크족, 우즈베크족, 이즈크족, 투르크만족을 대표하는 화려하고 화려한 의상의 무희들이 공연을 펼쳤다. 동서양을 혼합한 조그마한 체격의 무희들이 울동적이고 폭발적인 정열을 간직한 춤을 선보였는데 꽤나 매력적이었다. 술이 몇 잔도니 어떤 사람은 우스개 소리로 이권을 잃어버렸다고 하며 이곳에 남겠다고까지 한다.



Day 3 홍산과 남산 방문

창지 인민병원 진료가 취소되어 오전에 홍산(紅山)을 방문하였는데 이곳은 우리 부산 시내의 용두산 공원 같았다.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접목된 경제개발로 한참 건설 중인 높은 빌딩과 곳곳에서 재개발 사업에 매진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홍산에서 신장자치구 박물관을 관람하였는데, 그곳에는 고대 중원과 역사를 같이한 신장 지역 옛 왕국의 역사, 위구르인들의 생활상, 의복, 생활소품, 긴 조한 지역에서 자연지 비라가 된 시신들(누란의 비녀, 아기, 노인 등) 등이 특히 인상적이었다. 오후에는 우루무치 시에서 약 한 시간 반 떨어진 유복민이 사는 남산(南山)이라는 곳을 방문했다. 갑자기 진료장소가 바뀐 탓에 환자가 그리 많지는 않았지만 지역 특수성과 식생활 문제, 경제적 문제 등으로 의료시설 인프라가 부족해 조기치

료 가이드라인 설정이 거의 없는 상

태였다. 아마도 유목민의 천막 속 카펫 때문인지(1년에 한번 세탁하면 많이 하는 편이라고 함) 진드기 종류의 알려지성 비염이나 천식 같은 질환에 대한 홍보가 적었다.

진료를 마치고 천상천지의 남쪽자락인 남산을 방문하였다. 마치 알프스나 로키산맥처럼 먼 산에는 만년설과 침엽수, 땅에는 초원이 펼쳐지고 밤에는 별이 쏟아지는 자연 그대로의 상태였다. 그곳에서 약 한 시간가량 말을 타고 자연을 만끽한 뒤 다시 숙소로 돌아오니 거의 자정에 가까웠다.



Day 4 투루판에서의 하루

넷째 날은 아침 일찍부터 시둘러 편도 200km 이상 멀리 떨어진 투루판 아미아 인과병원 분원을 찾았다. 광활한 대지 위에 뿔쳐진 고속도로는 차들이 그리 많지 않았다. 도시를 벗어나니 사막 같은 황량함이 지나고 한



참 초원이 계속되더니 다시 산 주위로 사막과 끝없는 초원지대가 연속 되었다. 어떤 지형에서는 태풍에 버금할 정도로 바람의 유력이 강해 풍력발전으로 이용하는 곳도 있었다(아마도 높은 기류와 높은 온도, 낮은 기류가 서로 만나는 지점일 것이다).

아미아 인과병원에도 많은 환자들로 붐볐는데 기온이 매우 높아 각 과 의료진들은 4시간 동안 쉴 틈 없이 더위와 싸워가며 환자를 진료하고 이깁없는 인술 봉사와 사랑과 우정을 싣 퇴웠다. 전신을 겸한 저녁은 근처 포도원에서

해결했다.

식사 후에는 세계에서 가장 바다와 먼 사막으로 유명한 화염산에 들렀다. 서유기에 나오는 화염산은 약850m의 벌거숭이 산으로, 피약벌에 비바람의 침식곡이 마치 불꽃처럼 인다는 산이었다. 산 근처에서 있기만 해도 찜질방이 따로 없었다.

그 부근에 위치한 천불동도 찾았다. 수십 개의 조그만 동굴 천정에 천개의 부처님 불상이 그려져 있었고, 오랜 세월의 흔적으로 불교벽화가 퇴색 되었지만 아주 오래전부터 전해진 이곳 사람들의 불심을 짐작케 하였다.



Day 5 마지막 여정은 문화탐방

마지막 날은 오전부터 문화 탐방에 나섰다. 시내에서 한 시간 반 동안 버스로 이동해 도착한 곳은 백두산의 천지와 이름이 똑같은 천산천지였는데 이곳 호수는 해발 2,000m가 넘는 곳에 위치한 높은 곳의 호수였고, 화산으로 생긴 연못이 아니고 지각변화로 물이 빠져 나갈 구멍이 없어서 생긴 자연호수라고 했다. 물감을 풀어 놓은 듯한 진 남빛 물이 넘실거리지만 멀리에는 주봉 정상(5,445m)의 흰 눈이 햇빛을 받아 빛나고 있었다. 면적 3km에 수심이 100여m나 되는 거대한 호수, 험산산맥 깊은 곳에 이런 호수가 있으리라고 누가 상상했겠는가. 그만큼 예전부터 천지는 주변 부족들에게 신성시 되었을 것이다. 백두산 천지와 이름이 같고 그보다도 훨씬 큰 중국 쪽 호수를 바라보고 있노라니 색다른 감회가 느껴졌다.

늦은 밤 북경으로 향했다. 새벽 3시 30분(한국시간)에 일어나 부산행 비행기를 타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다. 역사는 과거로 가는 여행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약속이다. 동서양의 문화가 만나고 교류하던 실크로드는 많은 상인들이 벤처를 꿈꾸며 죽음을 넘다들던 교역의 현장이고 숭한 동서양의 종교와 사상이 만나 다투고 융

합하던 문명의 용광로였으며 이곳의 길목을 차지하려는 여러 민족들이 국가의 명운을 걸고 싸우던 역사의 현장이다. 고조선의 병사들, 부여와 고구려의 사신과 상인들, 백제와 신라의 학승과 유학생, 발해의 외교관과 고려의 무역상들이 끊임없이 고민하고 희망을 품으며 왕래하던 이 길을 현대 의술을 갖고 후손인 우리가 방문한 것은 참으로 감개무량한 일이었다. 조그만 의료봉사지만 지역주민과 같이 호흡하고 우정의 가교를 다지는데 한 몫을 했다는 자부심을 느끼며 현지점에서 과거를 반추하고 미래를 설계하는데 적잖은 도움이 되었기를 기대한다.



가을 낭만 캠핑의 모든 것

Best Camping Spot

여행 트렌드가 변하고 있다. 다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만 올려놓는 식의 여행에서 이전 자신이 직접 잠자리와 쉼 공간을 마련하는 캠핑족들이 늘고 있는 것. 자연 깊은 곳에서 여유로운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요즘 캠핑의 대세는 오토캠핑이다. 평소 생활공간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 의자며 테이블까지 갖추고 며칠씩 머무르는 것이 요즘 캠퍼들의 캠핑 방식이다. 가을 낭만을 근사하게 누릴 수 있는 캠핑. 요즘 트렌드를 잘 아는 블로거들에게 베스트 캠핑장을 소개받았다.

글 이은혜 | 사진 오태양, 채남수, 김문기



정선 가리왕산 자연휴양림 _ 태양 (blog.naver.com/sun39min)

지난 여름휴가 때에도 이김없이 오토캠핑을 다녀온 그에게 캠핑은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최고의 휴식이자 여행이다. 깨끗한 자연에 묻혀 몇날 며칠을 가족과 보내다 보면 일상의 스트레스는 어느새 저만치 달아나버리기 일쑤. 처음 캠핑을 시작할 때만 해도 집에 돌아오면 몸이 녹초가 되곤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에너지를 충전하고 온 기분이 든단다. 캠핑을 떠나기 전 짐을 꾸리는 순간부터 설레기 시작한다는 그와 가족들은 이미 캠핑의 매력에 흠뻑 빠진 듯하다. 한번 오토캠핑의 참맛을 알게 되면 떠나지 않고는 못 배긴다는 그가 추천하는 캠핑장은 강원도 정선에 위치한 가리왕산 자연휴양림이다.

전국에서 내로라하는 활엽수림과 희귀 수목인 주목, 구상나무 등이 우거진 피톤치드의 천국 가리왕산 자연휴양림은 가리왕산 기슭에 위치해 자연 속에서 휴식을 원하는 이들에게 인기가 높은 곳이다. 이곳에는 총 4개의 야영장이 있는데 관리 사무소 뒤편으로 오토캠핑장이, 나머지 제1~3야영장은 계곡을 따라 이어져 있다.

깔끔하게 정돈된 오토캠핑장 주변으로 화장실과 샤워실, 개수대가 마련돼 있어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다. 어린 자녀와 함께라면 무료 숲 해설가의 도움을 받아 숲 속 탐방에 나서도 좋다. 나무와 식물의 이름부터 어떻게 자라는지 어떤 특징이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어 아이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인기 만점이다.



가는 방법 | 영동고속도로 새말 IC에서 황성 안흥 평창 방향 국도 42호선을 이용해 1시간 30분 정도 달리면 비행기재 터널을 지나 솔치 삼거리에서 좌회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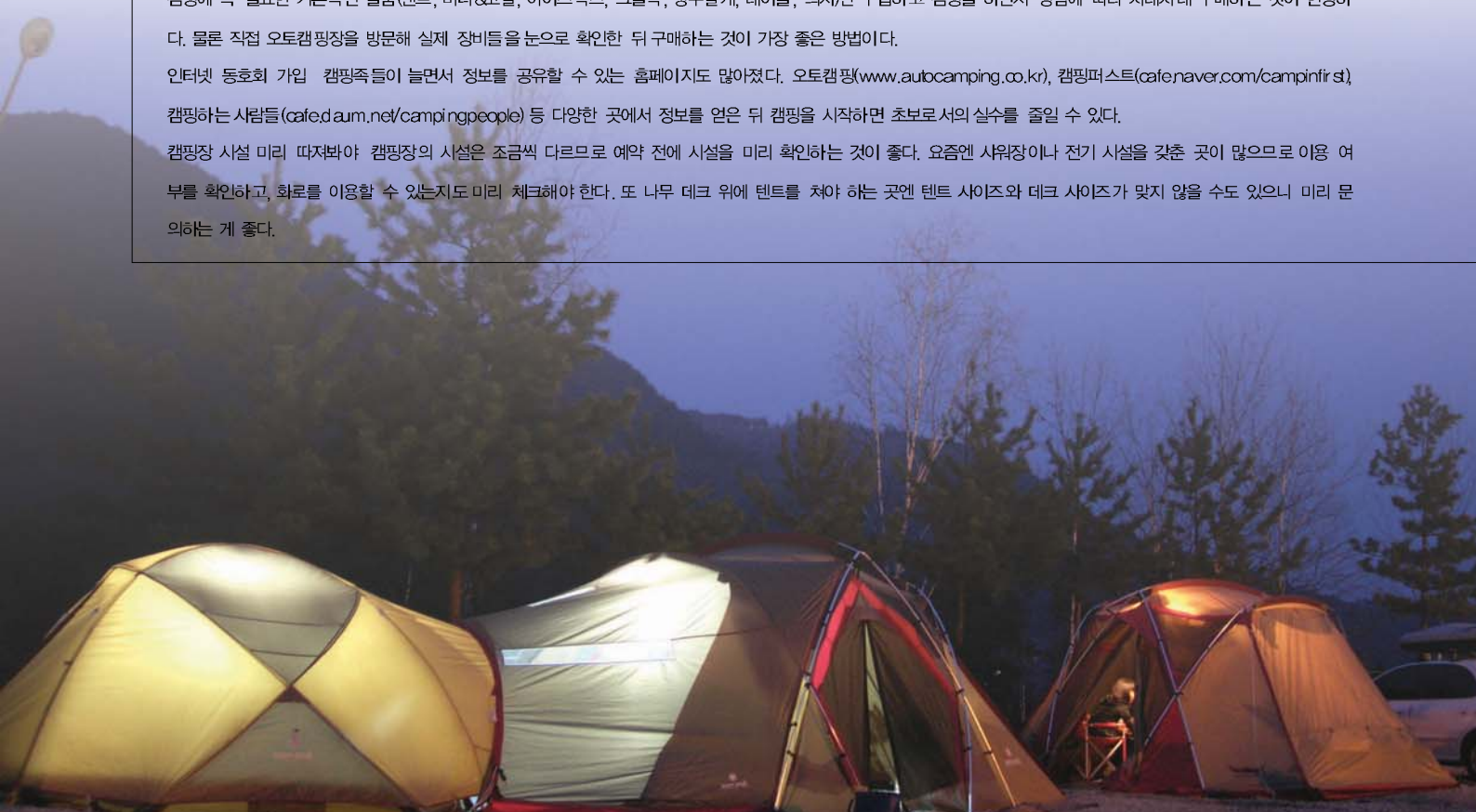
시설 | 취사장, 샤워장·온수 가능, 식수대 **요금** | 오토캠핑장 8,000원 입장료 1인 1,000원 **이용방법** | 선착순 입장 **문의** | 033-563-1544

TIP. 초보 캠퍼라면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

처음부터 많은 장비 구입 말아야 초보 캠퍼들이 저지르는 실수 중 하나는 처음부터 고가의 물품을 사는 것이다. 무턱대고 캠핑용품 매장부터 들르는 실수를 하지 말자. 캠핑에 꼭 필요한 기본적인 물품(텐트, 베너&코펠, 아이스박스, 그늘막, 방수갈레, 테이블, 의자)만 구입하고 캠핑을 하면서 경험에 따라 차례차례 구매하는 것이 현명하다. 물론 직접 오토캠핑장을 방문해 실제 장비들을 눈으로 확인한 뒤 구매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인터넷 동호회 가입 캠핑족들이 늘면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홈페이지도 많아졌다. 오토캠핑(www.autocamping.co.kr), 캠핑퍼스트(cafe.naver.com/campinfirst), 캠핑하는 사람들(cafe.daum.net/campingpeople) 등 다양한 곳에서 정보를 얻은 뒤 캠핑을 시작하면 초보로서의 실수를 줄일 수 있다.

캠핑장 시설 미리 따져봐야 캠핑장의 시설은 조금씩 다르므로 예약 전에 시설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요즘엔 샤워장이나 전기 시설을 갖춘 곳이 많으므로 이용 여부를 확인하고, 화로를 이용할 수 있는지도 미리 체크해야 한다. 또 나무 데크 위에 텐트를 쳐야 하는 곳엔 텐트 사이즈와 데크 사이즈가 맞지 않을 수도 있으니 미리 문 의하는 게 좋다.



영월 남강캠핑장 _ 몽크 (www.gocamping.kr)

하루 2,000명이 넘는 방문자들이 꾸준히 들를 만큼 그의 블로그는 항상 인기다. 거짓말 조금 보태 전국 방방곡곡에 자리한 캠핑장이 모두 그의 블로그에 들어와 있는 듯하다. 게다가 캠핑 장비 설명부터 구입 요령, 캠핑장 정보 그리고 캠핑장에서 보낸 편안한 그의 일상들이 상세히 기록돼 있어 처음 캠핑을 접하는 초보자부터 익숙한 사람들까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많은 것도 블로그 인기 요인 중 하나다. 결혼 전에는 친구 혹은 혼자서 즐기던 캠핑을 결혼 후 아내와 함께 그리고 지금은 예쁜 딸과 함께 할 수 있어 행복하다는 그에게 좋은 캠핑장 소개를 부탁했다. 그는 이제 막 캠핑에 재미를 붙인 초보 캠퍼들을 위해 시설 면에서나 주변 경치 면에서나 요즘 한창 뜨고 있는 '영월 남강 캠핑장'을 추천한다.

물 맑고 공기 좋기로 소문난 강원도 영월은 캠핑족들에게 인기 여행지다. 특히 법흥계곡 주변으로 요즘 가장 뜨고 있는 핫한 캠핑장이 모여 있으니, 이는 사람은 다 아는 솔밭캠핑장과 우리들캠핑장 그리고 남강캠핑장이다. 남강캠핑장은 규모는 다른 두 곳에 비해 작지만 시설은 결코 뒤지지 않는 사실 캠핑장으로 축구를 해도 될 만큼 너른 잔디밭을 자랑한다. 성수기 시즌만 피한다면 아이들이 실컷 뛰어놀 수 있다. 캠핑장은 잔디밭과 계곡을 따라 늘어선 자갈 깔린 곳으로 나뉘는데, 그늘막(타프)이나 리빙샬을 치기엔 잔디밭이 좀 더 수월하다. 다만 잔디밭엔 나무 그늘이 없으니 한여름에는 그늘막이 필요하다. 캠핑장 주변으로 법흥계곡이 흐르고, 신라시대의 유명한 고찰 법흥사가 멀지 않아 아침 산책길로 적당하다. 조용한 곳에서 호젓한 캠핑을 원하는 이들이라면 꼭 들려봐야 할 곳으로, 사방이 고요한 밤에는 밤하늘 가득 쏟아질 듯한 별무리와 풀벌레 소리, 은은한 잔디 향이 어우러져 낭만적인 밤을 보낼 수 있다. 캠핑장 인쪽으로 민박을 이용할 수 있고, 대부분의 시설들이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어 시설 면에서 불편함은 없으며 사계절 내내 이용 가능하다.

가는 방법 | 법흥계곡 초입에서 법흥사 방향으로 약 5분 정도 올라가면 우측 위치 **시설** | 전기시설, 샤워실(온수), 화장실, 개수대, 민박 매점

요금 | 2만원(성수기 3만원) / 전기 3,000원 **이용방법** | 선착순 입장 **문의** | 033-375-1006

TIP. 오토캠핑의 기본, 텐트

캠핑용 텐트는 사람이 여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공간이 넉넉한 것이 특징이다. 때문에 산악용 텐트에 비해 몇 배로 무거워 차량으로 옮기는 것이 수월하다. 주로 캐빈형을 사용하는데 무게가 나가고 텐트를 칠 때 조금 복잡한 대신 천장이 넓고 활동 공간이 넓어 오토캠핑에 그만이다. 요즘엔 잠잘 공간뿐만 아니라 거실 기능을 하는 리빙샬 스타일을 갖추는 경우가 흔한데 내부가 넓어 이곳에 테이블과 의자를 놓고 휴식을 취하거나 조리 공간으로 활용 가능하다. 비와 바람을 막아주는 그늘막을 연결해 사용하면 훨씬 안정적이다. 텐트를 사계절용으로 사용할 것인지 계절별로 사용할지도 잘 따져봐야 한다.



동해 망상 오토캠핑장 _ 양떼네 (blog.naver.com/dgns)

채남수 씨 가족은 지난해 처음으로 캠핑카를 빌려 휴가를 떠났다. 차 트렁크에 한가득 짐을 싣고 가던 평소와 달리 모든 시설이 갖춰진 캠핑카를 이용하니 어느 때보다 여유로운 휴가를 보낼 수 있었다. 주부인 그녀가 캠핑을 떠날 때마다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시간. 다년간의 캠핑 생활을 통해 그녀는 자신만의 요리 수칙을 정했다. 우선 조리가 간편한 요리를 메뉴로 정한 캠핑하면 빠질 수 없는 고기류를 먹을 땐 몇 가지 소스를 챙겨 물리지 않게 색다른 맛을 즐기는 것이다. 야채는 요리에 들어가는 야채별로 미리 썰어 밀폐용기에 담아가면 음식물 쓰레



기도 줄이고 훨씬 간편하게 요리할 수 있어 좋다는 채남수 씨. 특히 예쁜 접시와 테이블보까지 꼼꼼히 챙겨 자연에서의 근사한 한 끼를 즐길 줄 아는 그녀에게 최고의 캠핑장을 물으니, 동해바다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망상 오토캠핑장을 적극 추천한다.

망상 오토캠핑장은 이미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곳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자동차 전용 오토캠핑장인 탓도 있겠지만 보기만 해도 뛰어들고 싶을 정도로 맑은 망상해수욕장을 지천에 두고 있어 마치 외국에 있는 듯한 착각마저 들게 한다. 이름값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 망상 오토캠핑장은 울창한 송림과 너른 백사장, 그리고 길게 늘어선 캐러밴이 한 폭의 멋진 풍경을 연출한다. 특히 가로등이 불을 밝히는 야경이야말로 망상 오토캠핑장의 자랑거리. 캐러밴과 차량을 이용한 오토캠핑뿐만 아니라 캐빈 하우스, 이국적인 아메리칸 코티지 등 다양한 숙박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 캠핑이 낯선 이들도 얼마든지 이곳을 이용할 수 있다. 오토캠핑장에는 총 10대의 캐러밴이 자리하며 침실, 부엌, 화장실, 텔레비전 시설을 갖추고 있다.

가는 방법 | 영동고속도로 강릉 IC에서 동해고속도로 진입 해 망상 톨게이트에서 좌회전 노봉삼거리에서 11시 방향으로 가다 망상역 지나 망상삼거리에서 직진

망상해수욕장 입구에서 좌회전 **요금** | 2인2,000원 (성수기 3만8,000원) / 캐러밴 대여 4만 4,000원, 주말 6만 6,000원, 성수기(7~8월) 11만원

시설 | 공동샤워장, 취사장, 화장실, 코인 세탁기, 매점, 카페테리아 **이용방법** | 사전 예약 **문의** | 033-534-3110 www.campingkorea.or.kr

TIP. 캠핑카 타고 떠날래~

많게는 1억원을 호가하는 캠핑카를 꼭 구입할 필요는 없다. 오토캠핑 붐에 발맞춰 수준 높은 캠핑카를 대여해주는 전문 렌트 업체가 점차 늘고 있기 때문. 인터넷 검색창에 '캠핑차 렌트'라고 검색만 해도 수많은 업체의 리스트가 있으니 주머니 사정에 맞게 고르면 된다. 대개 일 기준 15만원, 성수기의 경우 22만~35만원선으로 캠핑카의 크기에 따라서도 금액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캠핑카는 2중 면허만 있으면 운전할 수 있으나 만 26세 이상,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이어야 대여할 때 보험 적용이 쉽다.



판례로 살펴본 의료분쟁의 예방

수술동의서와 의료분쟁

“믿고 사는 처지에 서류나 문서가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이러한 말이 친하거나 신뢰를 하는 당사자 간에 간혹 이야기 된다. 그런데 믿고 사는 처지일수록 더욱더 문서나 서류가 필요하다는 것이 변호사로서 세상을 접한 결과 얻은 교훈이다. 왜 그럴까? 사람은 누구나 좋을 때가 있고 그렇지 아니할 때가 있기 마련이다. 그것이 인생이다. 좋은 시절에는 누구나 서로에게 관대해진다. 서류나 문서가 필요 없다. 그렇지만 좋지 못한 상황에 처하면 원만한 성인군자가 아니어서야 좋지 못한 상황이 남 탓은 아닐까 생각하게 되고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런 원칙은 의료에서도 마찬가지다.

글 김선옥(대한비뇨기과개원의협의회 자문변호사, 법무법인 세승 대표변호사)



의료라는 것이 그 내용상 자기의 몸을 의사에게 맡기는 것이니 친분관계를 넘어서 고도의 신뢰관계에서 출발을 하게 된다. 그래서 “선생님 선생님” 하는 것이다. 선생과 제자 간에 교육을 받을 때 수업계약을 체결한다면 이해가 되지 않을 것이다. 공부 못했다고 해서 선생님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경우는 들어보지 못했다. 그런데 수술이 잘 되지 않으면 의사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이 요사이 대세다. 그러다 보니 결과가 좋지 못하면 무슨 꼬투리라도 잡아서 의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된다. 사실 의술이 경험적이고 전문적이다보니 환자 입장에서 의술이 잘못되었다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은 지극히 제한적이다. 오히려 설명 받지 못한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발생하였다고 말을 돌리고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더 편하기 때문에 환자도 그렇고 환자의 소송을 재판하는 법관도 마찬가지 생각을 갖는 것이다.

그러면 의사의 입장에서 매우 간단한 지혜가 생긴다. 수술 전에 향후 발생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을 미리 환자에게 고지하면 되는 것이다. 의사의 입장에서 그런 것이고 이러한 책임을 면하는 행동이 환자의 입장에서 수술 전에 자신의 몸을 내주는 것에 대한 동의의 밑바탕이 되는 것이다. 어려운 말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방법인 것이다. 문제는 후유증이나 부작용을 분명히 말했는데도 환자가 나중에 언제 그랬냐고 거짓말을 할 때이다. 이러한 현상은 크게 두 가지 이유일 것이다. 하나는 실제 설명을 받았는데 환자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환자가 이해하지 못하여 설명을 듣고도 못들은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상황의 책임은 필자가 보기에는 의사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자기 보호를 위한 조금의 신경을 쓰지 못한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이야기를 돌려서 은행에 가서 돈을 대출받을 때를 생각해보자. 사실 은행 담당자가 의사가 환자에게 설명하듯이 친절하게 그리고 진지하게

대출계약서의 사항을 설명하는 것은 극히 드물 것이다. 그러나 그 결과는 매우 다르다. 은행이 사전 설명을 하지 아니하여 손해배상을 해준 것과 병원의 것과 비교해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무슨 차이일까?

분쟁의 예방책은 문서

형식의 면을 생각해보자. 금융대출관련 계약서를 잘 보면, 일정한 부정적인 내용에 반드시 괄호표가 있고 돈을 빌리는 사람이나 금융상품을 사는 사람이 직접 그 괄호에 자신이 직접 일정한 사항을 쓰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괄호에 장담(?)을 쓴 사람이 실제 그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많은 분쟁이 예방된다.

물론, 서명을 한 것이나 괄호를 채웠다고 해서 그 내용을 모두 이해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분쟁의 초기에 이러한 문서가 완비되어 있는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는 그 분쟁의 양상이 다르다. 실무에서 환자가 자기가 예상하지 못했던 부작용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가지고 문제를 제기할 때 이러한 수술동의서나 사전 설명서가 있는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를 비교해보면, 충실한 수술동의서 등이 있는 경우에는 환자가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소송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환자의 입장에서 자신의 필체로 설명을 받은 흔적이 있는 객관적 증거가 있는데도 소송을 진행하면 자신이 패소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기 때문이다.

의료소송을 하다가 보면 진료기록부에 붙어 있는 수술 동의서나 사전 설명서를 큰 병원이든 작은 병원이든 볼 수 있게 된다. 큰 병원은 이러한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 설명이 비교적 충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금융권의 계약서만큼의 것은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 물론 금융권의 계약서처럼 잘 되어 있는 병원은 소송이 걸리지 않는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진료 특성에 맞는 문서 작성이 필수

최근에 병원이나 의원에서 일정한 특수진료에 전념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특수진료에 맞는 부작용이나 후유증 사례는 전문화되고 특화된 병원의 의사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에 맞추어 설명서나 수술동의서를 만들어 놓아야 한다. 표준화된 수술동의서나 설명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법원도 이러한 동의서의 문장을 '부동문자'라고 해서 실사 동의서의 말미에 환자가 서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설명의 존재를 환자가 부정할 경우에는 의사가 이를 입증하지 아니하는 이상 설명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다.

대법원은 "수술 전날에 환자의 사숙이 '수술을 함에 있어 의사의 병 내용 설명을 숙지하고 자유의사로 승낙하며 수술 중 및 수술 후 경과에 대하여 의사와 병원 당국에 하등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하기로 하고 수술시행을 승인한다'는 내용의 부동문자로 인쇄된 수술승인서 용지에 서명 날인한 사실만으로는, 환자에 대한 수술 및 그 준비로서의 마취를 함에 있어서 병원의 의료팀이나 마취담당 의사가 환자나 그 가족에게 특히 전신마취가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이나 부작용에 대하여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4.11.25. 선고 94다35671 판결)"고 판시하고 있다.

사례별 법원의 판례

그러면 좀 더 들어가, '설명을 해주어야 하는 범위가 어디까지냐'라는 문제가 발생한다. 물론 정확한 기준은 없다. 그러나 법원 판례의 입장을 살펴보면 참고할 만한 내용이 있다고 본다.

우선 마용목적 성형 등 건강이나 질병의 악화가 예견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우 '희소한' 부작용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설명을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 의료의 부작용에 대하여 문외한인 환자에게 악결과를 알고 있는 전문가인 의사가 일정한 설명의 의무를 부담하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의료행위를 선택하도록 하는 취지이다. 대법원은 성형수술 사건에서 "의사의 설명 의무는 그 의료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될 수 없으며, 그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당해 치료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발생가능성의 희소성에도 불구하고 설명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8443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다.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좀 이야기가 달라진다. 질병이 있어 그러한 질병을 고치기 위한 일반적인 경우에는 '상당한 정

도 의 설명이 필요하다. 대법원 판례를 보자. “일반적으로,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을 시행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응급환자의 경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료계약상의 의무로서 또는 수술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당해 환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 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당해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료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환자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하여 요양의 방법 기타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상세히 설명하여 후유증 등에 대비하도록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6.11.23. 선고 2005다11688 판결).”

더 나아가 심각한 질환상태에서 설명 여부와 상관없이 중대한 응급 수술을 하여야 한다면 의사의 설명의무의 시행이 불필요하거나 일부 생략이 되었다고 해도 의사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대법원은 “환자가 의사로부터 올바른 설명을 들었다리도 위 투약에 동의하였을 것이라는 이른바 가정적 승낙에 의한 의사의 면책은 의사측의 항변사항으로서 환자의 승낙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대법원 1994.4.15. 선고 92다25885 판결)”는 판결이 그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좀 더 심화하여 살펴 볼 문제는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했을 때, 통상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정신적 손해, 즉 ‘위자료’ 배상을 명하는 것이 일반적인 판례의 경향인데 이에 더 나아가 재산적 손해까지 배상 해주어야 하는가 여부가 문제가 된다. 쉽게 풀어 이야기하면 수술 전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고 설명에서 누락된 부작용이나 후유증이 발생하였을 때 환자에게 발생한 정신적 고통 이외의 치료비나 장애로 인한 소득 감소분까지 배상해주어야 하는지 여부이다.

대법원은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채 수술 등을 하여 환자에게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환자측에서 선택의 기회를 잃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데 대하여 위자료만이 아닌 전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는, 그 설명 의무의 위반이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의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 이어야 하고 그러한 위반행위와 환자의 사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함이 입증되어야 한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56095 판결)”고 판시하고 있다. 미골통을 치료하기 위하여 전신마취 하에 미골절제술을 시술함에 있어 마취제인 할로테인 부작용으로 사망한 사안으로 이 사건에서 환자는 문제된 증상 이외에는 다른 병이 없어 건강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위 증상 또한 그 자체로는 생명에 지장을 초래하는 중대한 질환이 아님에도 수술 도중 또는 수술의 부작용으로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에 이르렀기 때문에, 만약 의사가 환자에게 수술 전에 그 수술로 인하여 그와 같이 중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다면, 환자는 그 수술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중한 결과를 피할 수 있었으리라고 보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사망과 설명의무 위반 간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된다. 위 대법원 판례는 특이체질이나 극히 발생할 가능성이 희박한 부작용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까지 확장되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생명에 위험이 있는 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참고하여야 할 판례이다.



효율적인 직원관리

채용에서 퇴직까지 병·의원 노무관리

병·의원 인사노무관리 핵심은 사업장 근로감독 대비와 그에 따른 노동법률 분쟁의 예방이라고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사업장 근로감독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에 대한 대책과 의료기관 노무관련 표준 서식을 예시한다

글 김기선(대한비노기과개원의협의회 노무관리 협약사 노무법인 율촌 대표 노무사)

사업장 근로감독 제도

가) 의의 사업장 근로감독이란 근로감독관이 근로조건을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장, 기숙사, 그 밖의 부속건물에 입검하여 노동관계법령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법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지시 및 시정지시 불응 사용자를 사법처리, 과태료처분 등을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나) 제도 현재 사업장 근로감독은 정기감독, 특별감독, 수시감독이 있고 근로감독청원제, 자율점검제, 근로조건자율개선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금번 인천광역시의회사의 근로감독은 간호조무사회의 근로감독청원에 의하여 실시되는 정기근로감독이다. 정기근로감독은 사전에 미리 예고한 후 감독이 실시되는 경우가 많고, 그 목적은 처벌보다는 계도와 근로환경 개선 쪽에 비중을 두고 있다. 그러나 정기근로감독 시 법위반 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을 할 수도 있으며, 시정 조치를 내린 후 이에 대하여 이행하지 않는 경우는 반드시 처벌된다.

다) 대책 과거 위법상태를 치유하고 장래의 적법상태를 확보해야 한다. 장래의 적법상태는 법정 서류를 제대로 구비 하는 것이 핵심이고, 과거의 위법상태는 장래의 적법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대부분 치유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장래의 적법성 확보만으로 치유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바로 임금체불, 각종 제세공과금 체불문제다. 임금체불은 각종 법정수당(연차수당,

월차수당, 생리휴가보상, 연장야간휴일근무수당)과 퇴직금 및 최저임금 미달액을 말하고, 제세공과금 체불은 4대 보험료와 갑근세 등을 부족하게 납부한 것을 말한다. 과거에 각종 법정수당을 미지급하고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했다면 당연히 임금체불이 된다. 또한 근로계약을 작성하지 않고 임금대장에 급여 항목을 나누어서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이 될 수 있다. 이 문제가 사업장 근로감독의 핵심이고, 근로감독에 대한 대책의 핵심이다.

라) 의료기관 노무관련 표준지침 근로감독에 대한 대비가 과거 위법상태의 치유와 장래 적법성의 확보라고 했을 때 적법한 근로계약서 및 법정 서류들의 구비가 필수다. 다음의 의료기관 노무관련 표준지침과 관련 구비서류 예시를 통해 의료기관 노무관리업무에 참고하길 바란다.

사업장에서 비치해야할 주요 대장, 서류 등

1) 근로기준분야 취업규칙(인사규정, 징계규정, 보수규정), 단체협약, 근로계약서, 근로자명부, 출근부, 임금대장, 상여금지급서류, 퇴직금지급대장, 연월차 휴가대장, 연장근로 등에 따른 서면합의(동의)서,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인가서.

2) 기타분야 노사협의회 규정 및 회의록, 고충처리위원선임 및 고충처리 대장, 성희롱예방교육대장,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대장.

효율적인 병원홍보

진화하는 매체환경 따라잡기

복잡하고 다양한 환경 속에서 효율적으로 병원홍보를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진화하는 매체 환경의 흐름을 읽는 것이 성공의 조건이다.

글 정성식(한국경제TV PD)

21세기는 정보와 매체의 홍수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무수히 많은 정보와 매체가 우리 주변에 널려있다. 예전에는 도서관에 가야만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인터넷이라는 사이버환경을 통해 손가락 하나에 수많은 정보를 손쉽게 신속하게 얻을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이런 복잡하고 다양한 환경 속에서 의료기관도 변해야 그 흐름에 따라갈 수 있고 이렇게 동일한 페이스를 유지하는 것이 곧 병원의 수익과도 직결되는 상황이다. 이에 매체환경에 대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하여 의료인들이 매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매체를 활용한 마케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실무적인 내용을 정리했다.

구분	매체	특징
1세대	TV(1970), 라디오(1927 JODK 경성방송국)	오감충족 매체탄생
2세대	케이블(1995-29개), 위성(2001), 인터넷	다양한 콘텐츠, 수신지역확대
3세대	지상파 DMB(2005.12), 블로그, UCC, IPTV(2006)	활동성, 양방향성 확대, 1인미디어
4세대	스마트폰, 앱스토어	터미널 역할, 다양한 마케팅
5세대	?	

이렇게 급변하는 시대적인 환경과 매체의 변화를 이해하고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것이 곧 병원의 마케팅과 홍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형성시킬 수 있다.

매체의 이해

가)세대별 흐름 1970년 컬러TV가 등장한 이후 대한민국의 생활습관은 거대한 변화를 맞이한다. 고작 알아봐야 이웃집이나 동네밖에 모르던 서민들의 시야가 국내를 넘어 해외까지 이어지는 변화기가 그것이다. 바야흐로 사람들의 눈이 즐겁게 되면서 그동안 없었던 욕구라는 것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시청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오락프로그램이 전성기를 맞는다. 이렇게 시작된 매체는 1세대를 거쳐 현재는 스마트폰이 유행하는 4세대로 분류할 수 있다.



소통으로 살맛나는

비뇨기과 수원모임

대한비뇨기과개원의협의회는 일상이라는 빠른 박자를 잠시 놓아버리고 따뜻하게 공감하고 따뜻하게 소통하는 소규모 모임이 많다. 그 중 수원지역의 회원들이 소속되어 있는 수원모임은 특유의 친화력으로 회원 간 친목을 다지고 의료정보를 공유하는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깊어가는 여름의 절정에서 유쾌한 이야기가 오고 간 수원모임 현장을 찾았다.

글 이동림 | 사진 이주혁 | 진행 임운정



무척이나 더웠던 지난 8월 24일 화요일 저녁, 수원지역에 흩어져 있는 개원의 선후배 회원들이 인근 갈비 식당에 모여 이야기꽃을 피운다. 진료실에서 겪었던 일화에서부터 골프, 여행이야기까지 유익한 정보들을 공유하느라 바쁘다. 늦은 진료를 마치고 찾은 회원들은 먼저 도착

한 회원들의 안부를 챙기는 모습이 정답기만 하다.

회원 간의 소통 중시

“늦은 진료와 바쁜 일상을 핑계로 자주 참석하지 못해요. 회원들에게 미안한 마음이지만 즐겁고 뜻 깊은 시간이 될 것 같네요.” 이날 수원모임에서 만난 한 회원의 이야기다. 현재 수원모임에 소속된 회원은 30명.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친화력은 어느 개원의 소규모 모임에 뒤처지지 않을 정도로 끈끈한 화합을 자랑한다.

물론 비뇨기질환 환자에게 새로운 삶을 찾아주고 웃음과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의료정보를 공유하는 일도 모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일. 수원 지역의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연구를 늦추지 않고 개원가에서 할 수 있도록 시술에 대한 기술 개발 노력

도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 “개원의들의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 상호 간에 지식을 교환하며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뜻을 함께한 모임이 어느덧 25년이란 세월이 흘렀네요.” 이날 수원모임에서 만난 이수성 총무는 감회가 더욱 새롭기만 하다. 수원지역 비뇨기과개원의협의회 회원들은 매월 넷째 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정기적으로 모여 서로간의 친목을 다진다. 친화력으로 뭉친 이들에게 최대 화제꺼리는 요즘 대학가에 불고 있는 개원시장의 약화설이다. 비뇨기과의 특수성 때문에 개원시장에서 성공하기 힘들다는 교수들의 주장. 이런 부정적 의견에 비뇨기를 전공하고 있는 후배들과 개원을 준비하고 있는 회원들이 자칫 의욕을 잃는 것은 아닐까. “개원의 소속 회원들은 대한민국 남녀를 불문하고 풍부한 비뇨기과 임상경험을 갖고 있을 정도로 우수한 인재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휩쓸리지 않고 굳게, 한 방향으로 나가려고 해요.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끈끈함으로 어려운 상황을 헤쳐 나가다보면 언젠가 개원시장도 더욱 활성화되지 않을까요.”

밝은 미래를 확신하는 회원들의 생각이 비뇨기과의 앞날에 든든한 밑거름이 되고 있음이 분명하다. 바쁜 시간을 쪼개어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한 사람 한 사람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알려서 고통을 나누는 수원지역 비뇨기과 회원들. 이들이 있어 대한비뇨기과개원의협의회 미래는 밝다.

2010 대한비뇨기과개원의협의회 추계학술대회

일 시 : 2010년 11월 28일(일) 09:00~17:40 장 소 : JW메리어트 호텔 5층 그랜드볼룸 평 점 : 6점

Program

... 프로그램

09:00~09:15	개회사 및 학술상 시상식	진길남 회장
09:15~09:40	특강 - The characteristics and predictive factors of non-responder to testosterone replacement therapy in testosterone deficiency syndrome - Minimally invasive vas surgery using a newly designed double-ringed damp	좌장 조찬홍 부회장 타워비뇨기과 유정우 원장 씨알비뇨기과 문현준 원장
09:40~10:00	Coffee Break	
10:00~10:10	축사	대한비뇨기과학회 정문기 회장
10:10~10:40	특강 - 전립선에서 5 alpha reductase의 역할	좌장 울산의대 김청수 교수 성균관대의대 이규성 교수
10:40~12:10	음경 확대술 - Augmentation Penoplasty in small penis syndrome patients; using adipose tissue derived stem cell: experimental and clinical result - 새로운 주사제 (LIPEN 10; Dextran + PMMA)를 이용한 음경확대술 - 음경확대술의 합병증	좌장 남성과학회 박광성 회장 이운수 지회장 Zhong Cheng Xin, Peking Univ (신충성 교수, 북경의대) 중앙의대 김재철 교수 LJ 비뇨기과 이용희 원장
12:10~12:40	브라본토 특강 - Novel PDE5 inhibitor, BRAVONTO	좌장 김남국 지회장 성균관대의대 이성원 교수
12:40~13:40	점심	
13:40~14:10	CJ 특강 - Lycopene의 전립선 질환 예방효과	좌장 정경우 지회장 Omer Kucuk, MD (Emory Univ., USA)
14:10~14:30	Coffee Break	
14:30~15:30	특강 - 사골의사 박경철의 경계 이야기 안동신씨계연합클리닉 박경철 원장	좌장 이철호 지회장
15:30~16:00	특강 - 진료의 효율성을 높이는 의료커뮤니케이션 새롭커뮤니케이션 대표, SBS 성우 강은하 강사	좌장 우종철 부회장
16:00~16:30	Tip and Tricks - 개인의원에서 전립선 수술: PVP and TURP	좌장 권길성 부회장 윤문수비뇨기과 윤문수 원장
16:30~17:40	특강 - 비뇨기과 개원의가 알아야 할 절임 및 골반염 - 피부트러블 환자에 대한 박피치료의 효과	좌장 임일성 부회장 고려의대 산부인과 송재윤 교수 봄미루비뇨기과 이유식 원장
17:40~	총회	

Registration

... 등록안내

- * 사전등록 기간 : 2010년 11월 22일(월) 18:00까지
- * 사전등록은 학술대회의 원활한 준비를 위해 꼭 필요합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 11월 22일(월) 이후의 등록은 학술대회 현장 접수처에서 당일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사전등록 방법

- 1 사전등록은 학회 홈페이지에서 등록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전화 또는 팩스로도 사전등록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 <http://urospace.com>
전화 : 02-704-8574
팩스 : 02-704-8573
- 2 등록비 입금처
계좌번호 : 국민은행 081101-04-103914
(예금주 : 대한비뇨기과개원의협의회)
- 3 문의처
대한비뇨기과 개원의협의회 학술대회 준비사무국
전화 : 02-704-8574
팩스 : 02-704-8573
E-mail : app@app2010.com
- 4 학술대회 등록비
사전등록비 : 30,000 원
현장등록비 : 50,000 원



대한비뇨기과개원의협의회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을 기다립니다

의견을 보내주세요. <유로진>은 회원 여러분과 함께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보내주실 곳 : FAX) 0505-507-5700
(대한비뇨기과개원의협의회 사무국)
E-MAIL) urologist@paran.com
nestes2@hanmail.net

1. 다음호 <유로진>에서 다뤘으면 하는 기사가 있으신가요?

2. <유로진>에서 꼭 만나보고 싶은 회원을 추천해주세요.

3. 진료실에서 겪은 에피소드나 여행기 등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소중한 의견 고맙습니다. 의견이나 사연을 보내주신 회원분들에게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이름 병원명

연락처

주소 -

- ☐ Gift 1. 제주하이트리조트 숙박권 1명 ☐ Gift 2. 부산롯데호텔 숙박권 2명
☐ Gift 3. 도서 <생명의 윤리를 말하다> 3명
☐ Gift 4. 이시모 사사키 앨범 <10th Anniversary Best Collection> 2명

<유로진> 13호를 발행하며



자주 만날 수는 없지만 생각만으로도 가깝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멀리서 소식만 전해 들어도 반가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 모두의 마음을 담아내고자 지난여름 <유로진> 재발행이라는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었고, 벌써 13호를 맞는 <유로진> 가을호를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호를 만들기 위해 한여름이 시작되던 8월 초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바쁜 시간을 쪼개어 원고를 보내주신 분들과 흔쾌히 인터뷰에 응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 <유로진>을 받아보시는 회원 여러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이제 <유로진> 13호를 마무리하고 다음호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한정된 지면이지만 더욱 알찬 내용들을 채워가고 싶습니다. 더 많은 소식과 더 많은 회원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보내주세요.

<유로진> 간행위원 일동

발행인 _ 진길남

발행일 _ 2010년 10월

간행위원 _ 이종진, 정도린, 이상린, 서경근, 두진경

김성은, 방은주

발행처 _ 대한비뇨기과개원의협의회

전화 02-6257-5700 / 팩스 0505-507-5700

편집 및 제작 _ KC&C(02-2263-4212~4)